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 개관: 산지풍수 연구의 관점에서

최원희* · 이근화** · 김정락***

An Overview of Characteristics of Fengshui Topography in Kyeryong Mountain: From the Perspective of Mountain Fengshui Study

Wonho Choi* · Geunwha Lee** · Jeongrak Seong***

요약 : 한국에서 고대 이래 풍수지리는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풍수논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부수적으로 또는 특별하게 산지풍수가 추구되어 왔는데, 산지풍수 추구는 대체로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풍수논리를 산지에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 풍수지리 연구가 일제강점기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정립한대로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주거풍수와 묘지풍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산지풍수에 관한 연구는 학계에서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지풍수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우선 주요 산지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산지풍수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산지 중 산지풍수가 전형적이라고 알려진 계룡산을 사례로 풍수지리의 특성을 개관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자의 현지 답사자료들을 바탕으로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과 변형, 계룡산 풍수지리에 연계된 요소와 연계의 결과 및 계룡산 풍수지리와 연계요소에 의해 발생한 현상을 파악하였다.

주요어 : 산지풍수, 계룡산, 풍수지리, 풍수도참, 신도안(新都內)

Abstract : Since the 1980s, the study of fengshui topography has been developed mainly focused on housing fengshui and cemetery fengshui established by Murayama Jiju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s a result the mountain fengshui study is assumed to have consequences that are almost extinct in the academic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over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fengshui topography in case of Kyeryong mountain known for the model of mountain fengshui among the Korean mountains from the point that the individual mountain fengshui need to be studied for the development of mountain fengshui study in Korea. This study researched concretely about the original form and transformational form of fengshui topography of Kyeryong mountain, the element linked to the fengshui topography of Kyeryong mountain, and the phenomena caused by the element linked to the fengshui topography of Kyeryong mountain for the purpose of the over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fengshui topography in case of Kyeryong mountain from the perspective of mountain fengshui study based upon the advanced studies and the field research materials by the researcher.

Key Words : Mountain fengshui (山地風水, Geometric geography of mountain), Kyeryong mountain (Kyeryongsan), Fengshui topography (風水地理, Geometric geography), Fengshui-docham (風水圖讖, Fengshui topography, writing of divination and magic prediction of fine future), Sindoan (新都內)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wh@kongju.ac.kr)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h7073@hanmail.net)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jrsung@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대상

한국의 풍수지리(風水地理) 연구에서 전통풍수의 경우 풍수도참(風水圖讖),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등에 기반하여 양택풍수(陽宅風水) 및 음택풍수(陰宅風水)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국에서 해방 이후 풍수지리 연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전반에 최창조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최근에 이르고 있는데, 최창조는 1984년에 간행한 「한국의 풍수사상」에서 한국의 풍수를 최초로 학리적으로 개관하면서 풍수설의 개요 및 역사, 풍수설의 원리, 국도풍수 해석, 양기풍수와 양택풍수, 도참류 상의 풍수사상 및 풍수적 이상의 땅 명당·길 지론에 관해 논한 이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러 논문 및 서적을 통해서 “한국의 풍수는 중국의 풍수와 원형이 다른 자생풍수(自生風水)”라고 주장해 왔다(최창조, 2009; 2011; 2013; 2016).

최창조는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풍수인물사: 도선과 무학의 계보」(2013) 및 「한국자생풍수의 기원, 도선」(2016)에서 “한국의 풍수는 도선과 무학에 의해서 주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한국의 풍수는 태생적으로 자생풍수로서 비보풍수(裨補風水)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최창조는 「한국풍수인물사: 도선과 무학의 계보」(2013)에서 도선에서 묘청, 신돈, 무학, 최호원, 박상의, 맹추(黨聚), 홍경래, 전봉준 등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에서 활동한 자생풍수가들을 소개하고, “자생풍수는 개혁사상과 비보사상의 두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창조는 이어서 「사람의 지리학」(2011)에서는 “자생풍수는 사람과 땅 사이의 상생을 추구하는 사람의 지리학”이라고 규정하고, 사람의 지리학으로서 자생풍수의 10개 특성을 제시하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창조는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이론」(2009)에서는 풍수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도시풍수’까지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최창조에 의해 한국의 풍수지리 연구가 학리적으로 정리되는 동안 윤흥기, 옥한석, 최원석 등도 최창조의 연구성과에 버금가는 여러 연구성과를 내왔다.

최근 들어, 한국의 풍수지리 연구는 전통풍수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러한 새로운 차원의 한국 풍수지리 연구는 한편으로는 ‘전통생태와 지속가능성의 관점’, ‘지형학의 관점’, ‘인문학적인 관점’ 등을 지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풍수의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지향성과 노력은 이도원·박수진·윤흥기·최원석이 저술한 「전통생태와 풍수지리」(2013), 옥한석이 저술한 「풍수지리 시간리듬의 과학: 고전적 풍수지리와 그의 현대적 재해석」(20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에서 2017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시도한 ‘전통풍수의 현대지리학적 재조명’ 등에서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해방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한국 풍수지리 연구는 대체로 배산임수 입지에서 양택과 음택의 명당을 식별하거나 설정하는 연구였는데, 이러한 풍수지리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村山智順(1931)이 저술한 「조선의 풍수(朝鮮의風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村山智順의 「조선의 풍수」는 총857쪽(부록 1매 첨부)에 걸쳐 민간신앙으로서의 조선의 풍수를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점혈법 등의 풍수법술’, ‘음양오행설’ 등에 의거하여 주거풍수(양기풍수)와 묘지풍수(음택풍수)로 분류하고, 주거풍수를 다시 국도풍수, 도읍풍수 및 주택풍수로 분류하여 서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村山智順의 조선의 풍수 연구는 대체로 배산임수 입지에서 양택과 음택의 명당에 관한 연구였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 풍수지리 연구가 일제강점기에 村山智順이 정립한 대로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주거풍수와 묘지풍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산지(山地)의 풍수’(이하에서 ‘산지풍수’라 칭함)에 관한 연구는 학계 차원에서는 거의 소멸되고, 공공이나 민간에서 개별 지역의 지리지 편찬시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산의 산지(山誌) 편찬 시 특정 산의 기존의 풍수에 관한 기술을 그대로 전재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본래, 한국에서 고대 이래 오랜 동안 풍수지리는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풍수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부수적으로 또는 특별하게 산지풍수가 추구되어 왔는데, 산지풍수의 추구는 대체로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풍수 논리를 산지에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최원석이 그의 저서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2014)에서 ‘사람의 산, 산의 인문학’의 전체적 관점의 하나로 ‘산의 지리학 풍수, 풍수의 눈으로 보는 산’ 등의 부분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

를 계기로 새로운 차원의 산지풍수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지풍수 연구는 아직 개별 산지에 관한 학리 수준의 연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차원의 산지풍수 연구가 전개되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지풍수의 경우 본질적으로 개별 산지의 입지와 자연환경 및 역사가 특수하고, 개별 산지의 풍수지리가 여러 관련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풍수 연구는 많은 수의 개별 산지들의 연구를 거쳐 체계적 일반화의 과정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하면, 산지풍수 연구는 진전에 남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 산지풍수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주요한 산지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산지풍수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우선 산지풍수가 매우 전형적이면서 더 나아가서 산지풍수의 지역화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계룡산(鷄龍山)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의 풍수지리의 특성을 개관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자료, 방법, 내용 및 의의

본 연구는 전술한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계룡산 풍수지리에 관한 기존의 주요 연구성과와 본 연구자의 현지 답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첫째,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原形)과 변형(變形), 둘째, 계룡산 풍수지리에 연계된 요소(要素)와 연계의 결과, 셋째, 계룡산 풍수지리와 연계 요소에 의해 발생한 현상(現象)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에 관해 개관하기에 앞서 계룡산 풍수지리의 기반에 해당되는 계룡산의 위치, 영역, 지명유래, 역사 및 지형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계룡산 풍수지리 특성의 종합적 및 체계적 개관은 물론, 우리나라 산지풍수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더 나아가서 일반적 풍수지리로서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풍수 논리가 산지의 풍수지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의 고찰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 한국사, 사회학, 철학, 종교학, 국문학, 인류학, 민속학 등의 분야에서 서적 형태의 연구와 논문 형태의 연구가 병행되었다.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서적 형태 연구를 보면, 대부분 계룡산의 전반적 사항을 다루는 가운데 그중의 일부로서 계룡산의 풍수지리가 다루어졌는데, 「충청의 재발견: 계룡산」(한홍수, 1993), 「계룡산지」(충청남도, 1994), 「계룡의 어제와 오늘」(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 「계룡산맥은 있다」(이길구, 2001a), 「계룡산」(정종수·서헌강, 2003), 「계룡산」(국립공주박물관, 2007), 「이야기로 만나는 계룡산국립공원 문화자원」(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2018)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서적 형태 연구의 일부는 계룡산이나 신도안의 풍수지리, 비기도참, 신도경영, 종교촌, 신흥종교, 무속 등을 다루는 가운데 그중의 일부로서 계룡산의 풍수지리가 다루어졌는데, 「계룡산 신도안과 유사종교」(이경호, 1964),¹⁾ 「계룡소고」(충청남도계룡출장소, 1991), 「신도고사」(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 「계룡산」(이길구, 1996), 「계룡산: 신도안·돌로서 금정을 덮었는데」(이길구, 1997), 「계룡산 굿당 연구」(구중회, 2001)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논문 형태 연구를 보면, 계룡산의 전반적 사항을 다루기보다는 주로 계룡산이나 신도안의 풍수지리, 비기도참, 신도경영, 종교촌, 신흥종교, 무속 등에 관한 것인데, ‘조선초기 건도문제」(이병도, 1938), ‘계룡산 일대 종교의 실태조사」(민동근, 1969), ‘계룡산 신흥종교인의 미래관 연구」(신동호, 1969), ‘계룡산 신흥종교의 계보와 교리 연구」(류남상, 1969), ‘계룡산 신도안의 지리적 현황」(주경식, 1984), ‘계룡산·신도안 지역의 문화역사지리적 성격」(이영숙, 2000), ‘텍스트로서의 신도안 읽기: 조선초 천도과정을 중심으로」(권선정, 2002), ‘Kyeryong mountain as a contested place」(Ryu, 2005) 등이 대표적이다.²⁾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계룡산의 풍수지리를 계룡산 전체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또는 계룡산 천도(遷都) 시도, 신도안 종교촌 출현, 신흥종교 발생, 무속 발생 등의 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계룡산의 풍수지리를 연구하면서 계룡산 풍수지리 형성의 주체를 계룡산 그 자체로 간주하고, 그리고 계룡산 풍수지리의 형성이 계룡산 내외의 자연지리적 요인 및 문화역사지리적 요인이 연계되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일련의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계룡산과

금강”(최원희, 2015a),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 연구”(최원희, 2015b) 등이 그것들이다. “계룡산과 금강”(최원희, 2015a)에서는 계룡산의 신도안 종교촌 및 금강의 삼기강과 고마나루에 관해 고찰하였고,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 연구”(최원희, 2015b)에서는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형성, 변천 및 현재에 관해 고찰하였다. 또한, “공주 곶나루 설화의 곶상으로의 재현 및 곶상의 변형 연구”(최원희, 2015c)에서는 공주 사람들이 계룡산을 비롯하여 금강과 곶나루를 신성화하고, 이들에 연해 있는 자신들의 세속공간을 준신성화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아직은 서론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 민속학, 종교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적 및 논문 형태의 연구가 병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계룡산의 풍수지리를 계룡산 전체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또는 계룡산 천도 시도 및 신도안 종교촌 출현 요인의 하나로서 다루고 있다.

요컨대,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은 파편적이고 서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룡산 풍수지리에 관한 연구는 이제 계룡산 풍수지리 형성의 주체를 계룡산 그 자체로 간주하고, 그리고 계룡산 풍수지리의 형성이 계룡산 내외의 자연지리적 요인 및 문화역사지리적 요인의 연계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문헌의 발굴, 현지답사 등에 의해 새로운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II. 연구대상 지역의 고찰

연구대상 지역의 고찰은 본 연구의 대주제인 ‘계룡산의 풍수지리 특성과 관련된 계룡산의 위치, 영역, 지명 유래, 역사 및 지형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계룡산의 위치, 영역 및 지명유래

계룡산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계룡면에 주로 속해 있으면서 나머지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청남도 논

산시 상월면 및 계룡시 신도안면에 속해 있다. 계룡산의 면적은 계룡산국립공원 지정고시 면적 기준으로 64,683 km²인데, 이를 행정구역별로 보면 공주시 44,589km², 논산시·계룡시 13,149km² 및 대전광역시 6,945km²로 구성되어 있다(지광훈 등, 2009:64-65; 계룡시, 2017; 국토지리정보원, 2018a; 2018b).

‘계룡산(鷄龍山)’ 지명은 주봉인 천황봉에서 연천봉, 삼불봉 등으로 이어지는 산릉이 ‘닭(鷄)’의 벼슬(뺨)을 머리에 쓴 용(龍)의 모습과 닭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계룡산 지명은 조선 초기에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가 신도안(신도내(新都內), 현재의 계룡시 신도안면 일대)에 도읍을 정하려고 이 지역을 답사하였을 당시 동행한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形局)이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요,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 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일컬었는데, 여기서 두 형국의 주체인 ‘계’와 ‘용’을 따서 ‘계룡산’이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국립공주박물관, 2007:8; 국토지리정보원, 2010:383-384).

계룡산 지명이 ‘계화위룡(鷄化爲龍)’이라는 자구에서 유래했다는 학설도 있다. ‘계화위룡’은 ‘닭이 용이 된다’는 의미인데, 닭은 백성이고 용은 왕이므로, ‘계화위룡’은 백성이 주인이 되고, 백성이 왕이 되는 새세상을 염원하는 민중의 꿈과 희망을 의미한다. 본래, ‘계화위룡’은 “닭이 변해서 용이 되면, 그곳이 세상에서 으뜸이 된다”는 의미의 ‘계화위룡갑천하(鷄化爲龍甲天下)’에서 유래된 것이다(조동길, 2009:134-136). 계룡산은 백제시대 이래 계람산(鷄藍山), 웅산(翁山), 서악(西嶽), 중악(中嶽), 계악(鷄嶽), 마골산(麻骨山) 등 여러가지로 불렸다(국립공주박물관, 2007:8).

계룡산의 위치는 원근의 산지들 및 금강 등 대소 하천들과의 연계관계로 계룡산 풍수지리에 기본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계룡산의 영역은 계룡산 풍수지리의 공간적 범역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또한, 계룡산의 지명유래는 계룡산 지명 중 용(龍)자와 관련하여 특히 계룡산 풍수지리와 관계가 깊다.

2. 계룡산의 역사

계룡산의 역사는 매우 방대하지만, ‘고대로부터의 제사공간’과 ‘전란기의 피난처’로 압축될 수 있다.

백제의 문주왕(文周王)은 475년에 수도를 한강 유역

에서 금강 중류의 웅진(熊津, 현재의 공주)으로 옮겨 새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계룡산은 왕도를 상징하고 가호하는 산악신으로서의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정신적 지위는 이후에도 상당 부분 계승되었다. 통일신라는 전국의 5대 명산을 오악(五嶽)으로 지정하고 이를 국가적 제사처로 삼았다. 계룡산은 그중 서악(西嶽)이 되었다. 오악으로서의 계룡산은 신라의 제사규정 중 중사(中祀)에 속했다. 이는 이전부터 존재해온 산악신앙의 전통을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여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조에는 계룡산을 비롯한 오악에 대한 제사 기록(943년, 태조 26년), 작호(爵號) 하사 기록(1018년, 현종 9년) 등이 있다.

조선조에는 전국의 주요 명산·대전·성황에 대하여 작호가 내려질 때 계룡산신(鷄龍山神)은 호국백(護國伯)에 봉해졌고(1393년, 태조 2년), 공주의 계룡산신과 금강의 웅진지신(熊津之神)에게 제사를 지낸 사실이 기록에 남겨져 있다(1413년, 태종 13년). 이로써 볼 때, 계룡산신에 대한 국가적 제사는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중요시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윤용혁, 2018:18-21).

한편, 고대 이래 계룡산신에 대한 제사는 제사공간인 사당이 마련되어 일정 장소에서 거행되었던 것 같은데, 조선 초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6)에서는 계룡산 제사와 관련된 기사를 ‘계룡산사(鷄龍山祠)’³⁾라는 항에서 적고 있다. 조선 후기의 읍지에 의하면, 계룡산사의 위치는 신원사(新元寺)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현재에도 계룡산신의 제사처로 알려진 중악단(中嶽壇)이 있다. 「공주군지」(1957)에 의하면, 중악단은 1879년(고종 16년)에 계룡산사로 개칭되었다. 신원사(新元寺)의 본래 이름은 ‘신원사(神院寺)’였는데, ‘신원(神院)’이라는 것은 다른 아닌 제사처의 의미이다. 신원사 경내의 중악단이 고대 이래 계룡산에 대한 제사처, 즉 계룡산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제사처는 가장 신성한 장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기 때문이다(윤용혁, 2018:21-22).

전란기마다 계룡산은 지역민의 피난처 역할을 했는데, 660년(백제 의자왕 20년) 나당연합군의 대공세로 사비성이 함락되어 백제가 멸망할 때, 13세기에 몽골군의 대대적인 고려 침략전이 전개되었을 때, 1476년(고려 우왕 2년) 왜구가 부여, 공주를 거쳐 연산 쪽으로 쳐들어 왔을 때, 조선시대에 임진·정유의 왜란 때, 1894년 동학혁명

시 노성, 경전을 거쳐 공주를 둘러싼 대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등이 그런 경우였다(윤용혁, 2018:24-26).

계룡산의 역사에서 ‘제사공간으로서의 계룡산’은 ‘계룡산의 신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계룡산의 신성성’은 계룡산 풍수지리의 주요한 발생적 기원의 하나에 해당된다. 또한, 계룡산의 역사에서 ‘전란기의 피난처로서의 계룡산’은 ‘계룡산의 도참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룡산의 도참성’은 계룡산 풍수지리의 주요한 발생적 기원의 하나에 해당된다.

3. 계룡산의 지형

계룡산의 지형은 산체형상, 산릉, 협곡 분지, 하천 및 구혈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계룡산의 지형적 범위는 넓은 범위와 좁은 범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넓은 범위로 보면 천황봉(天凰峰, 846.5m), 삼불봉(三佛峰, 777.1m), 연천봉(連天峰, 742.9m), 향적산(香積山, 574.0m), 국사봉(國事峰, 442.3) 등 20여 개의 산봉우리들을 포함한 계룡산국립공원 일대를 지칭하고, 좁은 범위로 보면 전체 산봉우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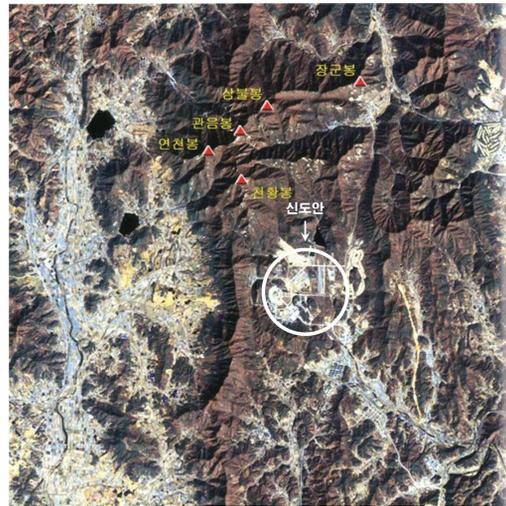


그림 1. 계룡산과 그 주변의 지형

출처 : 지광훈 등, 2009:64.

* 천황봉, 연천봉, 관음봉, 삼불봉 및 장군봉일대가 속칭, 닭벼슬 형태 부분이고, 신도안 서쪽에서부터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은 산지가 속칭 용꼬리 형태 부분인데, 이 부분에 향적산, 국사봉이 있음. 천황봉 바로 아래의 신도안은 분지 형태를 취하고 있고, 두계천의 상류부에 해당됨.



그림 2. 계룡산 신도안분지(1983년 6월)

출처 : 이길구, 1996:32-33.

* 1984년의 '6·20 사업 시행 1년 전인 1983년 6월의 모습임. 그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4등분했을 때 좌측에서 두 번째 부분의 산지가 계룡산에서 가장 높은 천황봉임. 신도안분지에는 3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음. 사진에서 좌측에 석계천이, 중앙부에 용동천이, 우측에 두계천이 각각 흐르고 있는데, 석계천과 용동천은 분지 아래쪽의 남문지(南門地)에서 두계천에 합쳐짐. 천황봉 아래 석계천과 용동천 사이의 조그만 소구릉은 중봉(中峯, 176.5m)임(국립지리원, 1996a; 1996b).



그림 3. 계룡산 신도안분지

출처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22-23.

* 분지의 좌측에 닭벼슬로 불리는 자연성릉 형태의 산지와 용꼬리로 불리는 산지가 T자형으로 연결되어 보임. 좌측 산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천황봉임. 분지 안에 계룡대(鷄龍臺)가 입지해 있음.

중 가장 높은 천황봉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계룡산의 일반적 높이인 846.5m는 천황봉의 높이에 해당된다(국립공주박물관, 2007:50; 국토지리정보원, 2018b).

계룡산 일대의 지형을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보면, 넓은 충적지 위에 천황봉을 주봉으로 한 산체(山體)로서의 계룡산이 우뚝 솟아 있는 형상이다(지광훈 등, 2009:65). 계룡산의 지형을 계룡산의 일반적 지명유래와 관련시켜서 보면, 천황봉, 삼불봉, 연천봉 등으로 구성된 닭벼슬 부분과 향적산, 국사봉 등으로 구성된 용꼬리 부분이 아래와 위로 합쳐진 형태이다.

계룡산의 지형을 그 자체로만 보면, 화강암의 차별침식이 만든 산릉과 협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릉은 천황봉을 중심으로 삼불봉, 관음봉(觀音峰, 765.8m), 연천봉, 머리봉(735.6m), 신선봉(神仙峰, 649.0m), 천왕봉(天王峰, 608.6m), 향적산, 관암산(冠岩山, 526.5m), 국사봉 등 20여 개의 산봉우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해발고도 600~800m의 산봉우리들은 기복량이 400m 이상을 나타낸다. 산릉의 급사면에는 대규모의 암석들이 선형으로 노출되어 자연성릉을 이루고 있다. 관음봉에



그림 4. 계룡산의 구할: 암용추(좌)와 수용추(우)

출처 : 이길구, 1996:32-33.

* 암용추는 계룡시 두마면 용동리 암용추골에 있는 화강암 바위 위에 형성된 직경 12m, 깊이 2.5m의 맑은 연못임. 수용추는 계룡시 두마면 부남리 수용추골에 있는 화강암 바위 위에 형성된 깊이 4m의 연못으로 10m 길이의 폭포가 연결되어 있음.

서 삼불봉에 이르는 2.1km의 구간이 자연성릉의 대표적 사례이다(충청남도, 1994:375-386; 지광훈 등, 2009:64-77). 협곡은 산릉 사이의 계곡으로 V자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큰 동학사계곡을 비롯해서 갑사계곡, 신원사계곡, 상신계곡, 화산계곡, 동월계곡 등이 있다. 이러한 협곡은 대부분 하천의 상류부를 형성하고 있다(국토

지리정보원, 2018a; 2018b).

계룡산 일대의 분지지형으로는 신도안분지가 있다. 신도안분지는 위치상으로는 산간분지이고, 생성원인 상으로는 화강암의 침식분지이다. 신도안분지에는 석계천(石溪川), 용동천(龍洞川) 및 두계천(豆溪川)이 흐르고 있다. 석계천은 수용추(웅용추(雄龍湫))에서, 용동천은 암용추(자용추(雌龍湫))에서 각각 흘러나온다. 두계천은 북문지 부근 민목재 남쪽 계곡에서 흘러나온다. 두계천은 대전광역시 서구 용천동 일대에서 갑천(甲川)에 합류된다. 계룡산의 협곡의 대부분은 하천이 흐르는 하곡을 형성하고 있다(국립지리원, 1996a; 1996b). 암용추와 수용추는 계룡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혈(甌穴)이다.

계룡산 지형의 주요 구성요소로 나타난 산체형상, 천황봉, 삼불봉, 관음봉, 연천봉 등으로 구성된 산릉, 동학사계곡, 신원사계곡 등의 협곡, 신도안분지와 그 안에서 흐르는 석계천, 용동천, 두계천 등의 하천, 암용수, 수용추 등의 구혈은 계룡산의 풍수지리를 형성하는 주요한 자연지리적 기반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III.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은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과 변형, 계룡산 풍수지리에 연계된 요소와 연계의 결과, 계룡산 풍수지리와 연계 요소에 의해 발생한 현상 등을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1.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과 변형

1)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적 유형

계룡산은 한반도에서 최고의 풍수지리적 길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길지성은 다양한 풍수지리 유형(類型)에 기인하고 있는데, 산태극수태극(山太極水太極), 회룡고조(回龍顧祖), 금계포란(金鷄抱卵), 쌍룡농주(雙龍弄珠)·일용농주(日龍弄珠)·유룡농주(遊龍弄珠)·비룡승천(飛龍昇天)·비룡봉익(飛龍鳳翺)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중에서 산태극수태극과 회룡고조는 계룡산 원근의 여러 산들과 금강(錦江)의 본류 및 지류의 형세(形勢)를 가지고 계룡산의 풍수형국(風水形局)을 표현한 것이고, 쌍룡농주·일용농주·유룡농주·비룡승천·비룡봉익은 계룡산의 풍수형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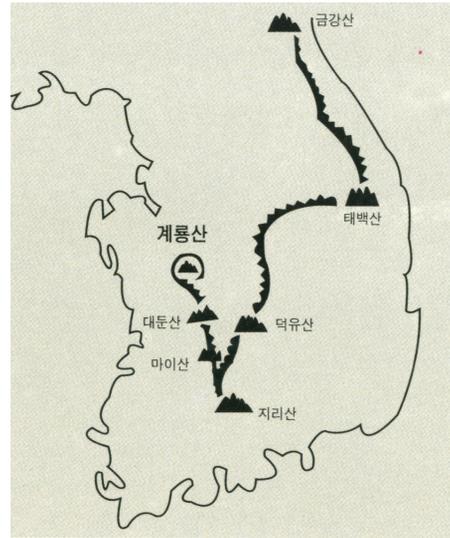


그림 5.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적 유형: 계룡산의 오맥 출처 : 이길구, 2001a:26; 정중수서현강, 2003:21.

* 태백산맥의 한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지리산을 이루었고, 여기서 다시 북쪽으로 머리를 돌려 3백리를 역룡하여 반달 모양으로 우회하며 계룡산을 만들었음.

용의 형세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금계포란은 계룡산 내 신도안 인근의 산세에서 금계와 일용의 형세를 가지고 신도안의 풍수형국을 표현한 것이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51-68).

(1) 산태극수태극과 회룡고조

계룡산을 풍수지리적으로 운위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말이 '산태극수태극과 회룡고조의 대길지'인데, 여기서 산태극수태극은 산태극과 수태극이 하나의 태극으로 맞물려 어우러진 형세를 말하고, 회룡고조는 산의 지맥이 뺨 돌아서 본산(本山)과 서로 대(對)하는 지세를 말한다. 이 중에서 '산태극과 회룡고조'란 결국 성격상 같은 풍수지리적 형세를 표현한 것으로, 이는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연원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연원을 보면, 태백산맥의 한 줄기가 태백산(太白山)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지리산(智異山)을 이루었고, 지리산에서 북쪽으로 거슬러 출발한 산줄기가 덕유산(德裕山) 일대에서 삼백여리를 역룡(逆龍)하여 반달 모양으로 우회하면서 계룡산을 만들었다는 것이다(충청남도, 1994:520-525).

부연하면, 금강산(金剛山)에서 동해안을 따라 뻗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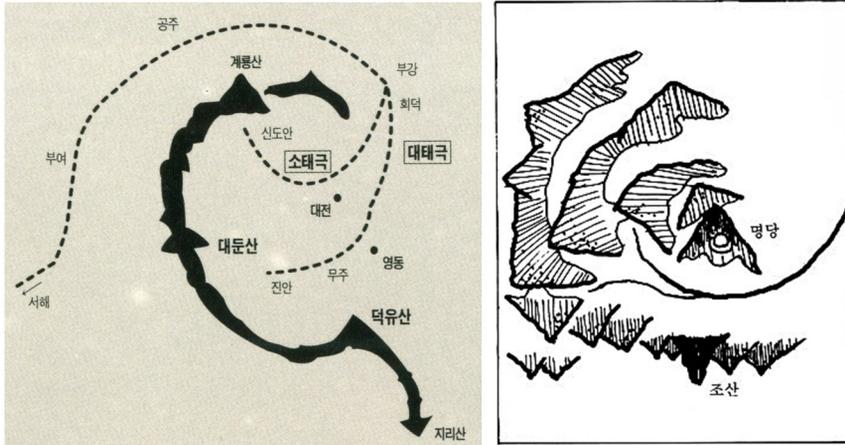


그림 6.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적 유형: 산태극수태극(좌)과 회룡고조(우)

출처 : 정중수서헌강, 2003:25(좌); 충청남도, 1994:525(우).

* 그림(좌)에서 '덕유산-대둔산-계룡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산태극'이고, '신도안-부강-공주-부여-서해'로 이어지는 물줄기(소태극) 또는 '진안-부강-공주-부여-서해'로 이어지는 물줄기(대태극)가 '수태극'임. 그림(우)에서 명당은 신도안 일대임. 신도안은 산태극수태극의 시발점이면서 태극체의 중심임.

린 산줄기가 태백산에서 서남진하면서 소백산(小白山), 속리산(俗離山), 민주지산(岷周之山), 덕유산 등을 이루었고, 산줄기가 지리산 일대에 이르러서 다시 북쪽으로 머리를 돌려 덕유산에서부터 마이산(馬耳山), 대둔산(大菴山), 천호산(天護山), 천마산(天摩山), 계룡산 상봉(上峰, 천황봉) 등을 거쳐 300여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공주(公州) 동쪽에 이르러 C자형으로 우회하여, 결국 계룡산은 태극의 용세(龍勢)가 '조상을 돌이켜보는 형세', 즉 '용세가 제물을 휘감아 제꼬리를 돌아보는 형세'인 '회룡고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충청남도, 1994:520-525).

이러한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연원은 '자지리산(自智異山)-역룡삼백리-회룡고조'로 요약되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리산으로부터 출발한 산맥이 거꾸로 북상하여 삼백여리를 올라가 계룡산에서 다시 동남으로 약간 남하하는 형국으로 되어 '머리를 돌려 근원을 돌아보는 형태'라는 것이다(충청남도, 1994:520-525).

한편,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형세 중 '산태극수태극'의 '수태극'은 물의 발원지에 의해 대태극과 소태극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대태극이란 계룡산을 감싸고 흐르는 금강이 발원지로부터 서해(西海)로 큰 태극형을 이루며 흘러가는 형국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태극의 수류를 상세히 보면 '장수(長水)·진안(鎭安)-무주(茂朱)-영동(永同)-대청호(大淸湖)-신탄진(新灘津)-부강(芙江)-공주-부여(扶餘)-서해'로 정리된다. 소태극이란 계룡산에서 흘러

러내리는 물이 신도안을 거쳐 동남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동북쪽으로 역류하여 금강과 합류하여 계룡산의 후면으로 흘러 공주, 부여 등지를 지나서 작은 태극형을 이루며 서해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소태극의 수류를 상세히 보면 '암용추·수용추-신도안-두계천-위왕산-자락-무도리-갑천(甲川)-대전(大田)-부강-공주-부여-서해'로 정리된다(충청남도, 1994:520-525).

수태극 중 대태극은 계룡산을 C자형으로 우회하고 있는데, 이는 산태극이 계룡산을 C자형으로 우회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결국 계룡산의 산태극과 수태극은 계룡산을 가운데 놓고 하나의 태극으로 되고 있다(충청남도, 1994:520-525).

요컨대, 계룡산은 풍수지리적 형세로 보면, "지리산에서 덕유산, 대둔산 등을 거쳐 계룡산으로 오는 산세"(산태극)와 "계룡산에서 발원한 금강 줄기의 수세(소태극) 또는 장수군 장수를 수분리에서 발원한 금강 줄기의 수세(대태극)"(수태극)가 서로 맞물려 하나로 어우러진 산수태극, 즉 쌍태극 형태의 태극체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특히 산태극이 회룡고조의 형세를 취하고 있어서 풍수지리적 길지명당의 극치라는 것이다(한홍수, 1993:58-61). 특히, 신도안은 '산태극수태극의 시발점'이어서(주경식, 1984:86-87), 즉, '태극체의 중심'이어서(한홍수, 1993:61) 계룡산 최고의 길지명당으로 간주된다.

(2) 쌍룡농주·일룡농주·유룡농주·비룡승천·비룡봉의 쌍룡농주·일룡농주·유룡농주는 계룡산의 지세를 용에 견주어 생긴 풍수적 용어로서, 계룡산의 형세가 마치 '용이 여의주를 어우르는 형국'이라는 뜻이다. 비룡승천·비룡봉의 '지기(地氣)가 꿈틀거리는 형상'을 용에 비유한 것인데, 그 중 비룡승천은 계룡산의 형세가 용이 자신의 조상을 돌아보며 공경하는 형국을 띠고 있다는 회룡고조 형세와 관련된 것으로 계룡산이 조상의 산인 덕유산을 돌이켜보며 승천하는 용과 같다는 의미이다.

또한, 비룡봉의 계룡산의 풍수적 형세를 지칭하는 것의 하나이다. 풍수적 해석에 의하면, 한국의 지세는 백두산(白頭山)을 조종(祖宗)으로 하여 남쪽으로 뻗어 내렸는데, 그 중 한 가닥이 나누어져 지리산이 되었으며, 여기서 북상하여 덕유산의 원맥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힘차게 역룡하여 운장산(雲長山), 대둔산 등을 세웠고, 굴곡을 지으며 충청도로 이어져 또 다시 남쪽으로 C자형을 이루어 이곳에서 비룡봉의 형세로 멈춘 것이 계룡산이다. 계룡산의 비룡봉의 형세는 계룡산이 우뚝 솟은 형상이 한편으로는 마치 용이 나는 모습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형국과 같다는 말이다(충청남도, 1994:525-526).

(3) 금계포란

'금계포란'은 계룡산 신도안이 마치 '금계(금닭)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을 이루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풍수적 유형으로 볼 때, 계룡산의 모양이 제자(帝字) 모



그림 7.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적 유형: 신도안의 금계포란
출처: 이길구, 2001a:27.

* 명당 신도안의 배후에 주산(천황봉, 상봉, 상제봉)이 있고, 좌측과 우측에 각각 좌청룡과 우백호가 있음. 금계가 알을 품고 있는 곳이 신도안임.

양을 하고 있고, 천황봉(제자봉(帝字峰))이 중앙에 솟아 주산(主山)이 되고, 금계산(金鷄山)이 청룡(靑龍)이 되고, 그리고 일룡산(日龍山)이 백호(白虎)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계(鷄)와 용(龍)과 상제(上帝)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계림(鷄林)에 군왕(君王, 용)될 자가 상제, 즉 제위(帝位)에 오를 것이란 것을 자연물로 암시한 것이라 한다. 또한, 금계와 포옹하는 신도안의 좌우에 작은 원구(圓丘)가 있는데, 그 동쪽에 있는 것이 금계포란형의 난구(卵丘)이고, 그 서쪽에 있는 것이 일룡농주형의 주구(珠丘)라 한다. 즉, 신도안에는 금계와 일룡이 모두 살아 있고, 또한 이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대길지라는 것이다(村山智順, 1931:852-853; 충청남도계룡출장소, 1991:47; 충청남도, 1994:525-526).

2)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

(1)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의 내역과 사례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은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으로서의 계룡산 풍수지리 유형을 '풍수개념도'에 부합되게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적 유형은 산태극수태극과 회룡고조, 쌍룡농주·일룡농주·유룡농주·비룡승천·비룡봉의, 금계포란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풍수지리 유형에는 풍수개념도에 준하는 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계룡산 내외의 풍수적 요소들을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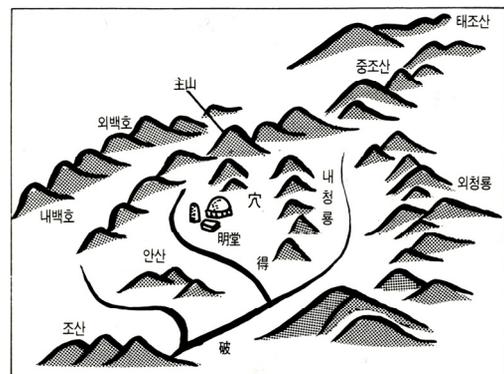


그림 8. 풍수개념도

출처: 최영주, 2006:29.

* 최창조(1984:61)의 그림을 참조한 것임.

계룡산 내외의 풍수적 요소들이 풍수개념도 기준으로 일부 결여되어 있거나 일부 풍수적 요소들의 절대 입지가 풍수개념도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수개념도에 최대한 부합되게 변형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에 원용된 풍수개념도(최창조, 1984:61; 최영주, 2006:29)는 태조산

(太祖山), 중조산(中祖山), 근조산(近祖山), 주산, 좌청룡(내청룡·외청룡), 우백호(내백호·우백호), 안산(案山), 조산(朝山), 혈(穴), 명당, 득(得), 파(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계룡산에서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은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거시적 차원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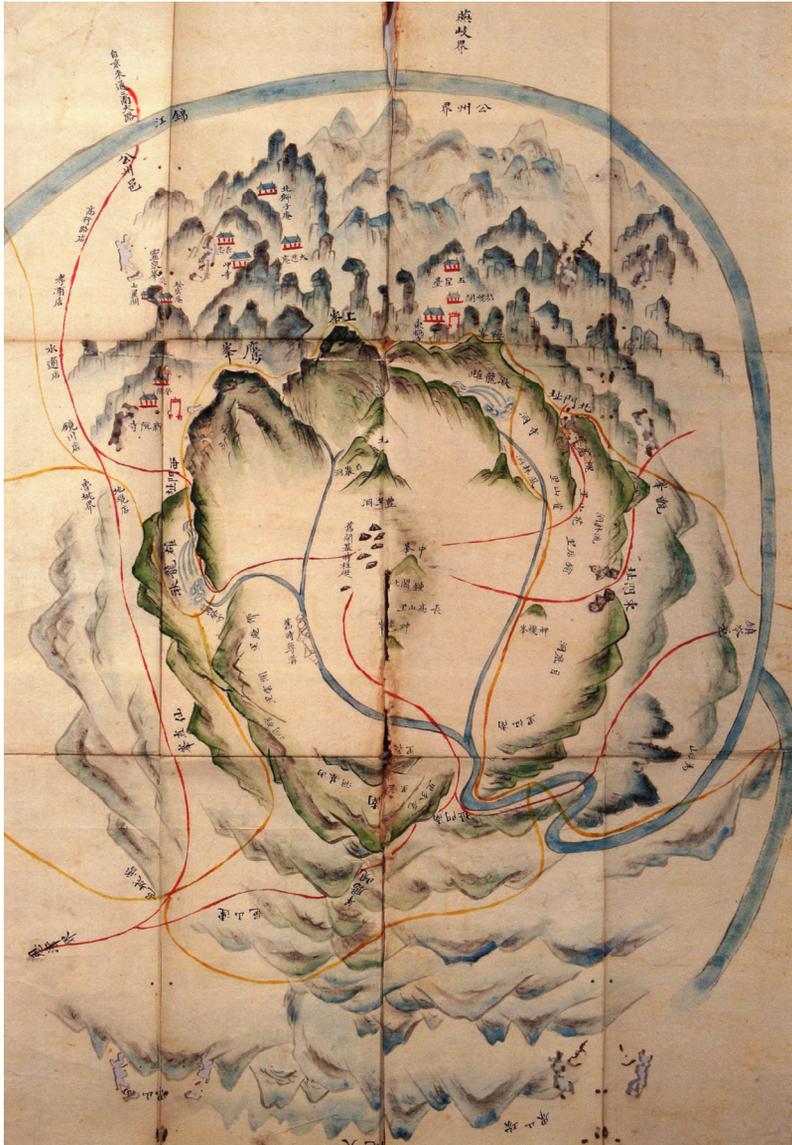


그림 9.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 거시적 및 미시적 재구성 사례

출처 : 국립공주박물관, 2007:10.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로서 '조선 후기의 신도안 일대의 풍수지리도'임. 그림의 가운데에 원형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크게 움푹 파인 등그런 부분이 신도안 일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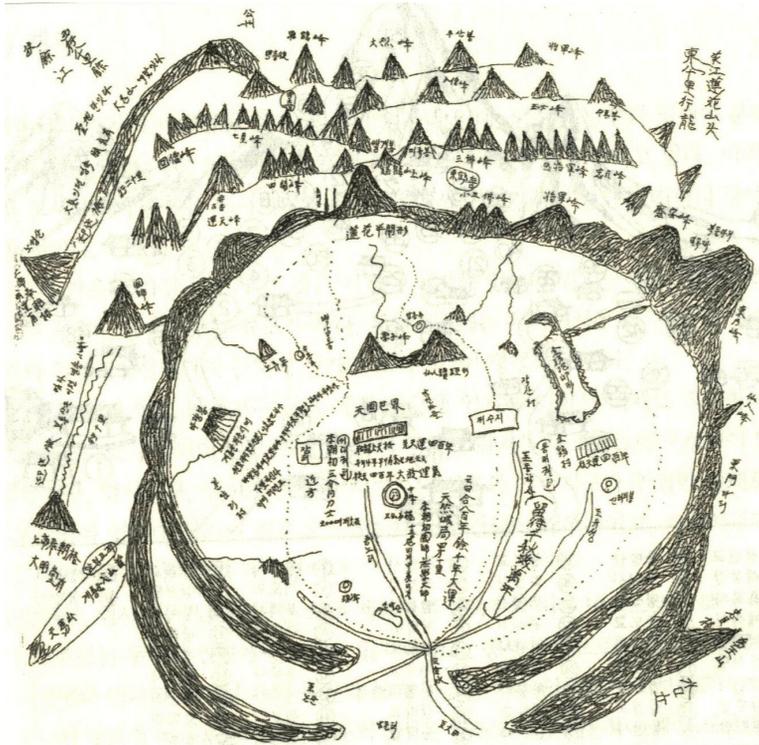


그림 10.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적 재구성: 거시적 및 미시적 재구성 사례

출처 : 계룡시, 2005:85.

* 자료에는 그림의 제목이 '계룡산인이 작성한 신도안 풍수지리도'로 되어 있으며, 정확한 작자 및 연대는 미상이나, 논산, 백암동, 암용추, 수용추, 우상봉, 장터 등의 현대적 한글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의 가운데에 원형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크게 움푹 파인 둥그런 부분이 신도안 일대임.

우는 계룡산과 사방 원근의 산지들, 금강, 신도안 등의 풍수적 요소들을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고, 미시적 차원의 경우는 신도안 일대의 천황봉, 삼불봉 연천봉, 관음봉 등의 산봉, 암용추와 수용추와 같은 구형, 석계천, 용동천, 두계천 등의 하천을 풍수지리적 구성요소로 하여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계룡산 풍수지리의 미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에서 신도안 일대는 정남좌향의 배산입수 입지에서 풍수개념도에 준하는 풍수명당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의 신도안은 정남좌향도 아니고, 배산입수 입지가 아닌 산간 분지 입지이다.

이와 같은 계룡산 풍수지리의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 사례로는 '조선 후기의 신도안 일대의 풍수지리도'(국립공주박물관, 2007:10), '계룡산인이 작성한 신도안 풍수지리도'(계룡시, 2005:85) 등이 있다. 이 그림들에는 계룡산 내외의 산지와 하천으로 구성된

계룡산의 풍수지리가 '풍수개념도'에 부합되게 계룡산을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그리고 신도안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그림에는 제작 당시의 계룡산 내외와 신도안 일대의 자연지리적 및 인문지리적 구성요소들이 거의 대부분 상세히 표기되어 있다.

(2) 계룡산 풍수지리의 핵심으로서 암용추와 수용추 전술한 바와 같이 계룡산은 산수태극, 즉 쌍태극 형태의 태극체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특히 산태극이 회룡고조의 형세를 취하고 있어서 풍수지리적 길지명당의 극치인데(한홍수, 1993:58-61), 특히, 신도안은 '산태극수태극의 시발점'이어서(주경식, 1984:86-87), 그리고 '태극체의 중심'이어서(한홍수, 1993:61) 계룡산 최고의 길지명당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룡산 풍수지리의 핵심으로서 신도안 풍수지리의 핵심이 바로 '암용추와 수용추'로 간주된다. 암용추와 수용추를 계룡산

차원 및 신도안 차원에서 풍수성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암용추와 수용추가 음양의 조화를 부리는 ‘풍수의 최극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암용추와 수용추는 계룡산 및 신도안의 풍수성을 발생시키는 최고의 연원으로 간주된다.

계룡산에는 천황봉, 삼불봉, 관음봉, 신도안 암용추·수용추 등을 중심으로 원시신앙으로서의 ‘무속’을 신봉하는 많은 수의 ‘굿당’들이 들어서 있었고(류제현, 2002: 64-71)⁴⁾, 신도안을 중심으로 들어서 있던 다양한 종파들 중 일부가 이러한 무속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곳들에 무속이 집중적으로 입지했던 것은 이러한 곳들이 무속에 의해서 ‘신성하게’ 여겨졌기 때문이고, 특히 ‘암용추와 수용추’ 일대에 무속이 가장 많이 입지했던 것은 이곳이 계룡산의 어느 곳보다도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부연하면, 계룡산에서 암용추 및 수용추는 천황봉, 삼불봉 및 연천봉과 더불어서 무속인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즉, 암용추와 수용추는 무속인들이 계룡산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의 하나이다. 무속인들이 암용추 및 수용추를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바로 암용추 및 수용추의 음양의 조화에 있는데, “사람들은 예로부터 항상 암용과 수용이 구름을 타고 이곳에 출입하면서 서로 만난다고 믿어왔다”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록, 암용추·수용추의 지명은 지형·지물을 남녀의 성기(性器)로 상징하여 숭배하는 행위는 원시신앙의 잔존물로 보인다는 주장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무속인들은 암용추와 수용추가 천신, 지신, 수신을 함께 만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믿는다(류제현, 2002:67-68; Ryu, 2005:557-559).

위와 같은 계룡산 신도안 풍수지리의 핵심으로서 암용추와 수용추의 풍수성은 「1887년 지방지도(1887年 地方地圖)」 중 연산현(連山縣) 부분에 나타난 신도안 일대의 지세도(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9)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계룡산의 닭벼슬 부분(좌측 상단부)이 매우 예리한 산릉으로 나타나 있고, 금강의 본류(우측 중·상단부)가 두터운 물줄기로 길게 표시되어 있다. 닭벼슬 형태의 산릉 아래에 둥글고 검은 원형으로 표시된 암용추(雌龍湫, 위쪽)와 수용추(雄龍湫, 아래쪽)가 있고, 암용추 및 수용추 바로 아래의 움푹 파인 분지 형태의 흰색 부분이 신도안 일대이다. 암용추에서 흘러나온 용동천과 수용추에서 흘러나온 석계천이 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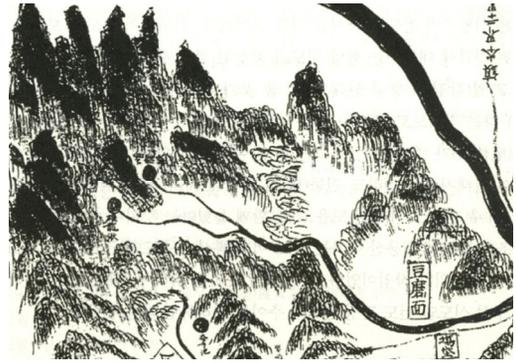


그림 11. 계룡산 풍수지리의 핵심으로서 암용추와 수용추
출처 :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9.

* 「1887년 지방지도」 중 ‘연산현’ 부분에 나타난 신도안 일대의 지세도로서, 신도안 일대의 풍수지리적 요소들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암용추 및 수용추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안 아래쪽 남문지에서 합류하고 있는데, 이 합류하천이 바로 두계천이다. 두계천은 그림의 우측 아래쪽에서 갑천에 합류되고, 갑천은 다시 금강에 합류되고 있다. 석계천과 용동천 사이의 부남리(夫南里) 일대가 천황봉을 주봉으로 하는 명당인데, 대궐터(궁궐터)가 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이래 1980년대 초까지 각종 종파들이 집중해 입지했던 곳이다. 석계천과 용동천은 명당의 좌우측을 흐르는 명당수로 간주된다.

암용추와 수용추에서의 암용과 수용의 음양의 조화에 관한 내용은 이른바 ‘암용추와 수용추 전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 전설의 주된 내용은 “옛날 계룡산 땅속에 암룡과 수용이 승천을 기대하면서 서로 연결된 땅굴을 파고 정을 나누면서 사이좋게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승천했는데, 암용이 올라간 자리가 암용추가 되고, 수용이 올라간 자리가 수용추가 되었다”는 것이다(국립공주박물관, 2007:166-167). 요컨대, ‘암용추와 수용추’는 계룡산과 그 안에 있는 신도안의 풍수지리의 연원적 요체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계룡산 풍수지리에 연계된 요소’와 ‘연계의 결과’

계룡산 풍수지리에 연계된 요소는 「정감록」의 비기도참(祕記圖讖)인데, 이와 같이 계룡산 풍수지리와 「정감록」(鄭鑑錄) 비기도참이 연계되어 형성된 것이 ‘계룡산

풍수도참이다. 계룡산 풍수도참의 사례로는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

1) 계룡산 풍수도참의 출현 배경과 주요 주제

(1) 계룡산 풍수도참의 출현 배경

「정감록」은 여러 가지 감결류(鑑訣類)와 비결서(秘訣書)의 집성이며, 주내용은 난세에 풍수설에 따라 복정(卜定)된 피난처에서만 지복(至福)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씨성(鄭氏姓)의 진인(真人)이 출현하여 이씨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는 예언으로, 미래에 다가올 멸망에 대비한 피난처의 이상경에 대한 동경이 전반을 꿰뚫고 흐르고 있다(仲摩照久, 1930a: 141-143; 村山智順, 1931:850-857).

여말선초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민중에게 다가올 다음 임금(진인)과 왕조의 도읍지(신도)를 예타하는 것과 다가오리라고 느껴지는 자연적·사회적 재난, 즉 흉년, 전염병 및 전쟁과 같은 삼재(三災)의 불입지(不入之地)로서의 피난처(승지)를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민중들에게 최고의 예언서로 등장한 것이 「정감록」이었다. 「정감록」의 계룡산국도풍수도참설은 병마(兵馬)와 사회혼란에서 몸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지도자와 지상천국을 대망하는 이들과 종교단체를 계룡산의 곳곳으로 불러들였는데, 계룡산 중에서도 특히 신도안에 바로 그런 곳들 중의 대표적인 곳이었다(최원희, 2015a:73).

(2) 계룡산 풍수도참의 주요 주제

계룡산의 풍수도참의 출처인 「정감록」의 2대 핵심은 ‘풍수설’로서의 계룡정도설(鷄龍定都說)과 ‘도참설’로서의 정씨왕운설(鄭氏王運說)이었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1:46).

「정감록」의 풍수도참적 비결류의 주제는 대체로 진인신앙(真人信仰), 신도신앙(新都信仰), 남조선신앙(南朝鮮信仰), 승지신앙(勝地信仰) 등으로 구분되는데, 진인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고, 피안(彼岸)의 구세주 정도령(鄭道令)의 도래를 약속하는 메시아니즘(messianism)이고, 신도신앙은 시운에 의해 구세주가 물러가고, 신왕조의 건설이 “평양 → 송도(高麗王氏 500년) → 계룡산(鄭氏朝鮮 800년) → 가야산(趙氏朝鮮 1,000년) → 전주(範氏朝鮮 600년)”의 순서로 반복된다는 것이다.⁵⁾ 또한, 남



그림 12. 신도안의 정감도사송덕비

출처 : 이길구, 2001a:41.

* 신도안 백암동 계곡에 있음. 비의 앞면에 정감록사상을 한시(漢詩)로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음.

조선신앙은 지운이 남하하고, 선경이 강산 남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소망이고, 승지신앙은 민심의 불안이 동란의 도래에 대한 공포로 나타나 심승지로 피난처를 구해야 하며, 불가피한 위운은 도피하는 은거주의이다(오세창, 1979:170). 이러한 「정감록」의 풍수도참적 비결류의 주제로 보면, 계룡산 풍수도참의 요체는 진인신앙, 신도신앙 및 승지신앙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룡산 풍수도참과 관련하여 신도안 백암동(白岩洞)에는 정감도사송덕비(鄭勘道士頌德碑)가 세워져 있다.

2) 계룡산 풍수도참의 관련 사례

(1) 도선 「비기」 중의 계룡산 풍수도참

신라 말 풍수승 도선이 자신의 저술, 「비기(秘記)」 중 신도안에 관하여 “송도는 500년, 이씨가 기국(其國)을 탈(奪)하여 한양에 천도하다. 한양은 400년, 정씨가 국권 찬탈하여 계룡산에 축(築)하다. 신도는 산천이 풍부하고, 조야(朝野)가 광(廣)하고, 인민을 치(治)함에 모두 손순(遜順)하여 800년 도읍의 땅이다”라고 예언한 바가 전해지고 있다(村山智順, 1931:851).

(2) 연천봉의 비기도참적 참구

「정감록」의 계룡정도설과 정씨왕운설은 계룡산에 있



그림 13. 연천봉 바위의 '方百馬角 口或禾生'(방백마각 구혹화생) 참구

출처 : 村山智順, 1935:부록 사진 32.

* 그림의 제목인 '方百馬角 口或禾生'이 村山智順(1935:부록 사진 32)의 자료에는 '鷄龍山上的豫言文字(계룡산상의 예언문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村山智順(1931:852-854)의 자료에는 '鷄龍山上的方百碑(계룡산상의 방백비)' 및 '鷄龍山連天峰上的識文(계룡산연천봉상의 참문)'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村山智順(1931:852-854)의 자료에는 '鷄龍山上的方百碑(계룡산상의 방백비)'의 사진을 게재하고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方百馬角 口或禾生'의 자구 중 '口(구)를 '國(국)'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표기상의 오류인 것으로 추정됨. '方百馬角 口或禾生' 자구 중 '口(구)와 '或(혹)이 합쳐서 '國(국)이 되기 때문임.

는 「정감록」의 비기도참적 참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대표적 사례는 연천봉 바위에 새겨진 상하 두줄의 자구(字句), 즉 '方百馬角 口或禾生(방백마각 구혹화생)'이다. 이는 "조선은 개국 후 482년 후에 망한다"는 뜻으로 조선의 운명을 예언한 글이다. 부연하면, '方百馬角(방백마각)'에서 方(방)은 4방이요, 글자도 4획이라 4를 뜻한다. 馬(마)는 牛(우)인데 牛라는 글자는 八(팔)과 十(십)을 더한 것이라 80이다. 角(각)은 뿔인데, 모든 짐승이 두개의 뿔이 있으므로 2가 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482란 숫자가 된다. 또한, '口或禾生(구혹화생)'에서 口(구)와 或(혹)은 國(국)자가 되고, 禾(화)와 生(생)을 합치면 禾生인데, 이것은 移(이)의 옛글자이다. 國(국)자와 移(이)자를 합하면, 國移(국이)가 된다. 여기서, 전체를 조합하면, '四百八十二 國移(사백팔십이 국이)'란 구절이 된다. 즉, "조선은 개국 482년째 되는 1874년에 망한다"(조선은 482년간 유지되고,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⁹⁾이다(仲摩照久, 1930a:143; 村山智順, 1931:852-854; 1935:942-943; 이길구, 2001a:45; 2009:24-25).

(3) 정씨의 도읍지 신도안 전설

「정감록」의 계룡정도설과 정씨왕운설은 이른바 '정씨의 도읍지 신도안 전설'로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룡산 아래 신도안에 사는 정씨라는 사람이 여느 날처럼 사냥을 나갔다가 노루를 보고 수차례 화살을 쏘았으나 노루는 안잡히고 말의 신음소리만 들려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와 잠에 빠졌는데, 꿈속에 나타난 백발 노인이 정씨가 쏘지도 않은 말을 두 필씩이나 쏜 것을 질책하면서 이곳을 떠나라 하여, 다음 날 산신령이 말한 대로 집에 불을 지르고 떠났다. 이후 세월이 흘러 신도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이들 간에 장차 정권을 잡는 임금이 정씨 가문에서 나오고, 이곳에 도읍을 정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정씨가 말을 쏘아 죽였기 때문에 정씨의 도읍은 불가해졌다는 말도 전해졌다. 그 후 신도안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 들었고, 정씨의 도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룡산을 영산이라 믿고, 계룡산 주위에 많이 모여들고 있다.

(국립공주박물관, 2007:165-166)

요컨대, 계룡산의 풍수지리가 「정감록」의 비기도참설과 결합되어 계룡산 특유의 풍수도참을 형성했다. 특히, 계룡산은 산지의 풍수지리가 「정감록」의 비기도참과 결합된 대표적 사례이면서 역으로 「정감록」의 비기도참이 산지의 풍수지리에 적용된 전형적 사례이다.

3. 계룡산 풍수지리와 연계 요소에 의해 발생한 현상

계룡산 풍수지리에 「정감록」의 비기도참이 연계되어 형성된 계룡산 풍수도참에 의해 조선조에 계룡산으로의 천도가 시도되었고, 그리고 신도안에 종교촌(宗教村)이 출현하였다. 계룡산 천도 시도는 2건의 사례가 있는데, '태조 이성계의 신도경영(新都經營)'과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계룡이도설(鷄龍移都說)'이 그것들이다.

1) 계룡산 천도의 시도

(1) 태조 이성계의 신도 경영

① 천도의 동기

조선 태조 이성계는 1392년 7월 개경(開京)의 수창궁

(壽昌宮)에서 즉위하고 3년여 간 송도민(松都民)들과 군신들의 천도 반대, 즉 천도상조론(遷都尙早論)에도 불구하고 개경을 떠나 계룡산, 한양(漢陽), 모악(母岳, 무악(毋岳)) 등지로의 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는데, 이의 주된 동기는 왕조의 경질에 따른 정치, 인심 등의 일신을 위한 천도보다는 음양풍수적 사상에 의거한 개경의 지기쇠왕설(地氣衰旺說)에 기인한 것이었다.⁷⁾ 개경의 지기쇠왕설은 이미 고려 15대 숙종조(肅宗朝, 재위 1054-1105)부터 유포되어 왔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27-32).

② 신도의 경영

태조는 즉위 이래 개경의 지기쇠왕설 극복을 위한 천도를 모색하던 중 주로 계룡산 국도풍수도참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계룡산 천도를 결정하고, 태조 2년(1393년) 1월 정당문학(政堂文學)이면서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인 권중화(權仲和, 1322-1408)로부터 「계룡산도읍도(鷄龍山都邑圖)」를 받고, 태조 2년 1~2월에 걸쳐 계룡산 신

도를 둘러보고 신도 건설을 지시하고 태조 2년 3월에 개경 출발 37일 만에 개경으로 환궁하였다. 태조 2년 2월에 시작된 신도 공사는 3~11월에 걸쳐 계속 진행되었으나, 태조 2년 12월에 경기좌우도관찰사(京畿左右道觀察使) 하륜(河崧, 1347-1416)의 반대로 대궐 공사를 중단하면서 신도경영을 멈추었다(충청남도, 1994:543-545;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3;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146). 태조 2년 2~11월에 걸쳐 진행된 신도공사의 규모는 종로, 남문, 북문, 동문, 서문, 수원(水原)과 아울러 신도 기내(畿內)에 속할 주현, 부곡, 향을 81개로 정하는 등 신도로서의 체(體)를 구비한 것이었다(村山智順, 1931:851).

③ 천도의 중단

태조 이성계의 신도 경영을 멈추게 한 하륜의 반대 상소의 근거는 송나라 풍수가인 호순신(胡舜申)의 「지리신법(地理新法)」의 풍수논리인 '수파장생 쇠퇴입지(水破長生 衰敗立地)', 즉 "수파장생으로 쇠퇴입지가 된다"



그림 14. 권중화의 계룡산도읍도의 추측도

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2018:28.

* 계룡시가 최근 신도안 도성이 완공된 것을 가상하여 권중화의 계룡산도읍도를 추측으로 제작한 것임. 신도에 들어설 종묘사직, 궁궐, 조시(朝市) 등이 묘사되어 있음. 가장 높은 산봉이 '천황봉'이며, 그 산 바로 아래의 큰 건물체가 '궁궐'임.

는 것이었는데, 이 풍수논리에 의하면, “계룡산은 신도 내의 물이 ‘진손사방 신경유방(辰巽巳方 申庚西方)’의 두 길방(吉方) 중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지 길방위가 되어 기(氣)를 깨뜨려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5-37).⁸⁾ “계룡산은 수파가 장생 방위라 반드시 망할 땅”이라는 것이다.

계룡산 천도가 중단된 다른 이유로는 계룡산에 조운 체제(漕運體制)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 18권, 충청도)에도 “결국, 조운의 길이 멀다하여 천도 역사를 그만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김규순·박현규, 2018: 201). 계룡산 천도가 중단된 또 다른 이유로는 계룡산 신도의 면적이 개경보다 크다고 보았지만, 이는 착시현상으로 실제로는 개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계룡산은 정씨 후손의 도읍지요 이씨 후손의 도읍은 한양이 된다는 ‘현병주총비(玄丙周總祀)의 감결(鑑訣)’을 수용했다는 점, 당시의 위치가 남방에 치우쳐 동·서·북 삼면과 떨어진데 기인하는 정치·경제·군사상 불편 등도 있었다. 계룡산 천도가 중단된 이후 태조 3년 9월 정도전(鄭道傳)의 의견을 받아 한양을 신국도로 정하고, 태조 3년 10월 천도를 단행했다(이병도, 1938:64-79).

④ 태조의 신도 경영 관련 최근의 동향

최근 계룡시는 당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신도안 도성이 완공되었을 때를 가상하여 ‘계룡산도읍도’를 추측하여 제작했는데, 그림에는 신도에 들어설 종묘, 사직단, 궁궐, 성군관, 육조거리, 관청, 시장터, 종루 등이 묘사되어 있다.

한편, 2017년에 계룡시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에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과 신도안에 남아 있는 유적을 근거로

이른바, ‘계룡산 드림’을 꿈꾸며 태조 이성계가 걸었던 그 길을 재현하고자 ‘이성계 꿈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태조 이성계 계룡산 신도행차’를 재현하기도 했는데, 계룡시는 이 행사를 통해서 천하길지 계룡의 지역적 자부심을 배가하고, 이에 따르는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고 있다(논산계룡신문, 2017년 9월 19일자). 최근 계룡시의 ‘계룡산도읍도 추측복원’과 ‘이성계 계룡산 신도행차 퍼레이드’는 조선 초 신도 경영의 시도가 현대에 재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홍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

조선 말 홍선대원군은 도참서, 즉 「정감록」이 전하는 바, 정씨가 이씨를 대신하고, 또한 계룡산은 정씨의 신도지라는 예언을 듣고, 계룡산록에 도읍을 옮기어 정씨의 그와 같은 전설을 압승(壓勝)하고자 했다. 이에, 인부들을 모아 그 터를 발굴하였다더니 주춧돌이 많이 나왔고, 발굴된 주춧돌에는 이곳이 정씨의 천년지택이니, 이것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큰 해를 입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널리 유포되었다. 그러나, 홍선대원군은 이러한 유언비어가 망언임을 알고 계속 공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때마침 재정의 곤핍으로 인하여 이도공사의 성공이 곤란하다고 아뢰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계룡산 도읍의 이도 공사를 중지하였다. 홍선대원군은 백성의 감정을 일신하고 국정 쇄신을 위해 도읍을 계룡산으로 이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대전시지편찬위원회, 1984:239).⁹⁾

홍선대원군은 ‘계룡이도’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정감록」의 부설(浮說)을 소탕하고자 팔도의 「정감록」을 수거하여 불태우고, 계룡산에 사람이 왕래하고 거주하는 것을 엄금하였으며, 태조 이성계가 계룡산 신국도를 세우고자 신도안을 방문했을 때 세운 계룡신사(鷄龍神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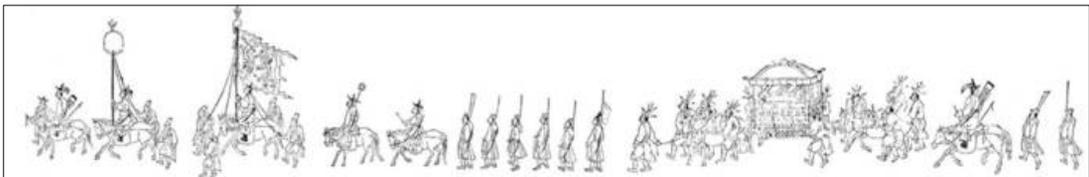


그림 15. 태조 이성계 계룡산 신도행차 계획안

출처 : 논산계룡신문, 2017년 9월 19일자.

* 그림과 같은 태조 이성계의 어가행렬은 실제 이성계가 행차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밀목재에서 신도안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림에서 가마는 태조 이성계가 탄 어가임.

를 이태왕(李太王, 고종(高宗))이 한국황제로 즉위한 익년에 폐하면서 천자오악봉선(天子五嶽封禪)의 옛 뜻에 따라 계룡신사를 중악단(中嶽壇)으로 고치고, 기존의 왕국 5백년을 여기서 끝내고 새로운 제국(帝國)의 신기원(新紀元)을 연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신원사(神院寺)를 신원사(新元寺)로 고쳤다. 왕후 민비(閔妃) 또한 승도(僧徒)로 하여금 은밀히 연천봉 상의 등운암(騰雲庵)의 옛터에 압정사(壓鄭寺)를 세워 정씨의 왕기(王氣)를 누르는 기원소로 삼았다(村山智順, 1931:852-854).

2) 신도안 종교촌의 출현

(1) 신도안 종교촌의 발생 배경

조선 중·후기 이후 계룡산의 풍수지리와 비기도참이 결합된 '계룡산 풍수도참'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중들이 계룡산을 성산(聖山)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계룡산 중에서도 신도안을 성소(聖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

었고, 더 나아가서 계룡산, 특히 신도안을 새로운 종교적 신념의 구현처로, 그리고 난세의 피난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계룡산의 풍수지리는 신도안을 중심으로 '풍수개념도'에 부합되게 재구성되어 있기도 한데, 이는 "신도안이 계룡산 풍수지리의 핵심인 산태극수태극의 시발점"(주경식, 1984:86-87)이고, '태극체의 중심'(한홍수, 1993:61)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신도안은 「정감록」예언의 실현지인데, 신도안에 여러 종파들이 운집한 것은 「정감록」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이길구, 1996:114-115).¹⁰⁾

이에 따라, 계룡산 풍수도참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말부터 신도안에 새로운 종교촌이 형성되는 요인이 되었고, 해방 이후 1980년대 초까지의 기간에는 대규모의 종교촌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었으며,¹¹⁾ 이러한 과정에서 풍수도참 이외에 유·불·선, 무속, 토속신앙 등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림 16.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자연 및 인문 경관(1929년)

출처 : 이길구, 1996: 뒤표지 안 부록; 정종수서현강, 2003:32; 국립공주박물관, 2007:15.

* '계룡산 신도안 상세도' 원본의 일부로서 좌측 하단부에 1929년에 이내연(李乃彦, 논산군 두마면 정장리 109번지)이 저작·발행하고, 당시 경성(京城, 경성부 수송동 27번지)에서 인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신도안에 입지해 있던 주요 종파의 시설 대부분을 포함하여 일대의 주요한 자연지명, 행정구역명, 기능체명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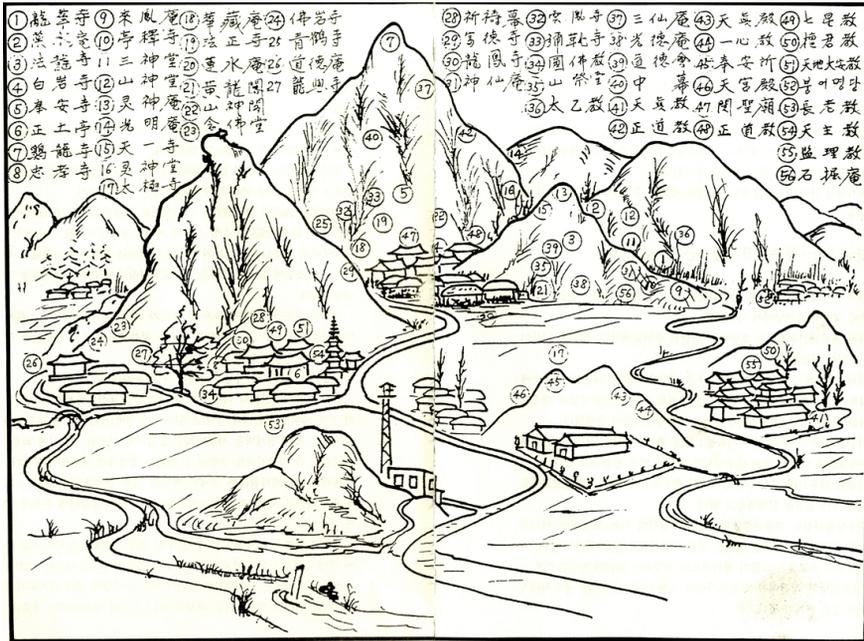


그림 17.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종파 분포(1970년 초)

출처 : 이길구, 1996:114-115; 이길구, 1997:116-117.

* 천진교(天真教), 칠성교, 단군교, 천지대안교(天地大安教), 천주교(天主敎), 태을교(太乙敎), 정도교, 일심교(一心敎), 산신각(山神閣), 용화사(龍化寺), 석굴암(石槧庵), 등 56개의 종파 분포 이외에 천황봉 등의 주요 산지, 석계천 용동천 두계천 등의 주요 하천, 중봉, 신털이봉 등의 소구릉, 대궐터(대궐평), 종로터, 신도내시장 등의 주요 취락, 신도초등학교, 계명중학교, 신도내출장소, 신도내우체국 등의 공공 기능체, 종로통 등의 도로망이 나타나 있음. 그림에서 ⑦번 종파가 있는 산봉이 '천황봉'임.

(2) 신도안 종교촌의 종파와 활동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신도안 종교촌에 유입된 종파를 구체적으로 보면, 1919년경에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도안에 신부락을 발생시켰고(仲摩照久, 1930b:105), 1924년에 동학 계통의 시천교(侍天敎)가 신흥종교로서 처음으로 집단으로 이주하였다(이길구, 1996:111; 이길구, 1997:115).¹²⁾ 1933년에 정토종(淨土宗), 상제교(上帝敎), 칠성교(七星敎), 만인교(萬人敎),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 단군교(檀君敎), 광화교부인수양회(光華敎婦人修養會), 정도교(正道敎) 등 8개의 종파가 입지해 있었다(善生永助, 1933:255-256). 또한, 1970년 초 무렵에 56개의 종파가 활동하였고(이길구, 1996:114-115; 1997:116-117), 1976년에 93개의 종교단체가 활동하였다(주경식, 1984:80). 1984년 신도안 종교촌 해체 이전에는 100여개의 종파가 입지해 적지 않은 규모를 이뤘으나, 1984년 이른바 '6·20 사업'이 시행되면서 폐쇄되었다(국립공주박물관, 2007:202).

(3) 신도안 종교촌의 혼란과 폐쇄

신도안 종교촌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 조선총독부가 켄쇼 에이스케(善生永助),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등의 어용학자들을 동원해서 미신 취락, 유사종교촌 등으로 폄하하고¹³⁾,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앙업자(信仰業者)로 매도하면서 크게 왜곡되었고¹⁴⁾,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기간에는 외적으로는 혼란스런 사회상황에 의해 타락하고, 내적으로는 기존의 풍수지리와 비기도참, 유불선, 무속, 토속 신앙 등과 이질적인 신흥기독교종파, 왜색종파 등이 부정합적으로 교합하고 난상으로 혼재하면서 퇴락을 거듭하다가¹⁵⁾ 무속행위가 신도안 암용추 및 수용추를 중심으로 한 신도안 일대를 넘어 천황봉, 삼불봉, 관음봉 등의 계룡산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행정기관에 의해 미신으로 치부되어 추방 및 타파 대상으로 전락했으며¹⁶⁾, 급기야 1984년에 시행된 '6·20 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폐쇄되고 말았다. 조선조 이래 풍수도참에 의해 발생한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이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의 혼란한 사회상과 국가개발계획에 의거해 소멸된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1984년 이후 계룡산 신도안 일대에서 계룡산의 풍수도참에 의지해서 새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민중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계룡산 신도안은 근·현대의 민중들이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열망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했던 곳으로 그 의미가 크다(최원희, 2015: 51). 최근 들어서 계룡산은 내외의 곳곳이 주거지, 관광휴양지 등으로 개발되어 급속히 세속화되면서 계룡산의 풍수도참은 더욱 훼손되고 있다.¹⁷⁾

IV. 요약 및 결론

본래, 한국에서 고대 이래 오랜 동안 풍수지리는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풍수를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부수적으로 또는 특별하게 산지풍수가 추구되어 왔는데, 산지풍수의 추구는 대체로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풍수 논리를 산지에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해방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 풍수지리 연구가 일제강점기에 무라야마 치준(村山智順)이 정립한 대로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주거풍수와 묘지풍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산지풍수에 관한 연구는 학계 차원에서는 거의 소멸되고, 민간에서 해당 지역의 지리지 또는 산지 편찬 시 특정 산지의 기존의 풍수에 관한 기술을 그대로 전제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최원석(2014)이 ‘사람의 산, 산의 인문학’의 전체적 관점의 하나로 ‘산의 지리학 풍수, 풍수의 눈으로 보는 산’ 등의 부분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새로운 차원의 산지풍수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산지풍수 연구는 많은 수의 개별 산지들의 연구를 거쳐 일반화의 과정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하면, 산지풍수 연구는 진전에 난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지풍수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우선 주요한 산지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산지풍수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산지 중 산지풍수가 특히 전형적이라고 알려진 계룡산을 사례로 풍수지리의 특성을 개관하고자 했다.

이러한 계룡산 풍수지리 특성의 개관을 위해 선행연구와 본 연구자의 현지 답사자료를 바탕으로 첫째, 계룡

산 풍수지리의 원형과 변형, 둘째, 계룡산 풍수지리에 연계된 요소와 연계의 결과, 셋째, 계룡산 풍수지리와 연계 요소에 의해 발생한 현상을 파악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은 계룡산 풍수지리의 다양한 유형들로 파악되었는데, 계룡산의 경우 산태극수태극, 회룡고조 및 쌍룡농주·일용농주·유룡농주·비룡승천·비룡봉익으로 나타났고, 신도안의 경우 금계포란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계룡산은 금강과 어우러져 산태극수태극을 이루고, 덕유산 등과 어우러져 회룡고조를 이루고, 계룡산 자체가 쌍룡농주·일용농주·유룡농주·비룡승천·비룡봉익을 이루면서 풍수지리적 길지로 인식되었고, 그 중에서 신도안은 좌청룡우백호에서 금계포란의 명당으로 간주되었다.

계룡산 풍수지리의 변형은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으로서의 계룡산 풍수지리의 다양한 유형을 ‘풍수개념도’에 부합되게 재구성한 것으로 거시적 차원 및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계룡산 풍수지리의 거시적 변형은 계룡산과 사방 원근의 산지들, 금강, 신도안 등의 풍수적 구성요소들을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고, 계룡산 풍수지리의 미시적 변형은 신도안 일대의 천황봉, 암용추와 수용추, 하천 등의 풍수적 구성요소들을 풍수개념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산 풍수지리의 거시적 변형과 미시적 변형 모두 풍수적 요소들을 ‘풍수개념도’에 부합되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신도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신도안 중에서도 ‘암용추와 수용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암용추와 수용추를 계룡산 및 신도안 차원 풍수성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암용추와 수추가 음양의 조화를 부리는 ‘풍수의 최극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적 유형과 변형적 재구성은 모델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암용추와 수추의 음양의 조화에 의한 신성성은 모델 형태의 그림과 전설로 나타나 있다.

둘째, 계룡산 풍수지리에 연계된 요소는 「정감록」의 비기도참이 대표적이다. 즉, 조선 초에 이르러 계룡산 풍수지리에 「정감록」의 비기도참이 더해져서 계룡산 특유의 풍수도참이 나타났는데, 특히 계룡산 풍수지리와 「정감록」의 계룡정도설과 정씨왕윤설이 결합하여 나타난 ‘계룡산국도풍수도참설’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정감록」의 풍수도참적 비결류의 주제는 대체로 진인신앙, 신도신앙, 남조선신앙, 승지신앙 등으로 구분되는데,

계룡산 풍수도참의 요체는 진인신앙, 신도신앙 및 승지신앙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룡산 풍수도참은 도선 「비기」 중의 계룡산 풍수도참, 연천봉 바위의 '방백마각 구혹화생'이라는 비기도참적 참구, '정씨의 도읍지 신도안 전설' 등으로도 재현되고 있다.

셋째, 계룡산 풍수지리와 연계 요소에 의해 발생한 현상을 파악한 결과, 계룡산 풍수도참은 '조선조의 계룡산 신도안으로의 천도 시도'와 '1920년대의 신도안 종교촌의 출현'을 유발했다. 조선조의 계룡산 신도안 천도 시도는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신도경영과 조선 말 흥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신도경영은 초기에 중단되었고, 조선 말 흥선대원군의 계룡이도는 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출현했던 신도안 종교촌도 우여곡절 끝에 1984년에 국책사업에 의해 소멸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관념적인 계룡산 풍수도참이 실제적으로 지역화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조선 초 태조는 계룡산국도풍수도참설에 의거하여 신도안에서 신도를 실현하려고 시도했고, 더 나아가서 계룡산도읍도를 제작하여 대궐공사를 시작했었다는 데 그의 의의가 적지 않다. 흥선대원군은 계룡이도설 이외에 「정감록」의 '정씨조선 800년설'을 부설로 간주하고 압승하기 위한 여러 일들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선 초 신도경영의 시도와 관련하여 최근 계룡시가 계룡산도읍도를 추측하여 복원해서 공개하고 있고, 2017년에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이성계 계룡산 신도행차 퍼레이드'도 개최한 바 있어서, 조선 초 신도경영의 시도가 현대에 축제 등의 형태로 재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선 말 흥선대원군의 계룡이도에 관해서도 설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도안 종교촌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되면서부터 미신과 유사종교로 폄하되었고, 해방 후에는 사이비종교로 간주되어 사회정화대상으로 전락했다가 급기야 1984년에는 계룡대의 입지로 소멸되었다. 신도안 종교촌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신도안 종교촌에 대한 성격 규정이 매우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 계룡산은 최근 들어 내부의 곳곳이 개발되고, 인접한 도시 주민들의 관광위락지로 변하면서 풍수지리적 특성을 급격히 훼손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배산임수 입지에서의 풍수 연구에 비해 산지풍수 연구는 아직 일천하여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계룡산 풍수지리의 특성'을 개관한 것이므로, 차후 본 연구의 세부 주제인 계룡산 풍수지리의 원형적 유형, 계룡산 풍수지리의 풍수개념도에 의거한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의 변형적 재구성, 계룡산 풍수지리와 「정감록」 비기도참의 결합에 의한 계룡산 풍수도참의 형성, 계룡산 풍수도참에 의한 '조선조 계룡산 천도 시도', '1920년대 신도안 종교촌의 출현' 등에 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차후, 계룡산의 풍수지리 특성이 인근 지역의 지역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작용해왔는지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¹⁸⁾

註

- 1) 이 연구의 발행 연도가 1964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래의 서적에는 발행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본문에 인용된 가장 마지막 통계자료의 발행년도 1963년을 기준으로 발행 연도를 1964년으로 추정하였다.
- 2)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내용은 계룡산 소재 및 인근 도·시·군·면의 지지(地誌) 및 지역학서(地域學書)에서도 일부 내용으로 상세히 다루지고 있는데, 「대전지지」(대전지지편찬위원회, 1984), 「논산군지」(논산군지편찬위원회, 1994), 「충남개도 100년사: 하권」(충청남도, 1997), 「계룡의 어제와 오늘」(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 「대전100년사: 제1권」(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논산지지: 4권 민속과 현대문화」(논산지지편찬위원회, 2005),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4년사」(계룡시, 2005), 「두마면지」(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 「공주학강좌」(공주시·공주학연구원, 2015) 등이 그것들이다.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내용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문으로 작성한 「계룡산유람기류(鷄龍山遊覽記類)」에도 일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오재정(吳再挺, 1641-1709)의 「유계룡산록(遊鷄龍山錄)」(1693), 송상기(宋相琦, 1657-1723)의 「유계룡산기(遊鷄龍山記)」(1700), 이해(李滢, 1691-1719)의 「유계룡산기(遊鷄龍山記)」, 남하정(南夏正, 1678-1751)의 「계룡기행(鷄龍紀行)」(1731), 권감(權堪, 1760-1823)의 「계룡산추기(鷄龍山追記)」(1793), 조익(趙翊, 1556-

- 1613)의 「공산일기(公山日記)」(1603-1605)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조동길, 2015:147). 계룡산유람 기류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이길구의 박사학위논문인 “계룡산 유기의 연구(鷄龍山 遊記의 研究)”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내용은 학리적 논구 차원은 아니지만, 몇 권의 소설집과 에세이집에서 일부 내용으로 다루지고 있는데, 소설로는 「계룡산 1~8(권)」(박용구, 1992), 「소설 계룡산」(김중걸, 2014) 등이 있고, 에세이로는 「계룡산」(신국현, 2000), 「방백마각 구혹화생」(이길구, 2001b), 「계룡비기」(이길구, 2009), 「술수평이 사람들」(김선화, 2010), 「정감록과 계룡산」(서울교육방송, 2018)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계룡산의 풍수지리에 관한 내용은 사진집인 「민간신앙으로 본 계룡산」(신용희, 1999)에도 포함되어 있다.
- 3) ‘계룡산사(鷄龍山祠)’를 村山智順(1931:855)은 「조선의 풍수」에서 ‘계룡신사(鷄龍神祠)’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계룡산사가 계룡산신(鷄龍山神)에 대한 제사처(祭祀處)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계룡산의 신성성(神聖性)을 보다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계룡산의 무속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선거리 무당들이 계룡산 일대로 피난을 내려와 굿당을 세우면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 후반기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집집에서 종교행위를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굿청’이 계룡산 일대로 쫓겨 들어오면서 ‘굿당’ 형태로 대규모로 확산되었는데, 1993-200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계룡산에는 64개의 굿당들이 있었다(구중희, 2001:271-275).
 - 5) 「정감록」에는 진인신앙, 신도신앙 등과 관련하여 “계룡정씨팔백년지지(鷄龍鄭氏八百年之地)”라든가, 그 시기는 “계룡석백(鷄龍石白) 초포행주(草浦行舟) 대소중화해망의(大小中華偕亡矣)” 또는 “한양이씨삼백년지지재어천수(漢陽李氏三百年之地在於天數), 약유소운측사백년(若有小運則四百年), 이후지칠갑자(以後至七甲子), 이후신년가지야(以後申年可知也)”라는 등의 예언적 기사도 있는데(村山智順, 1931:851-852),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계룡은 정씨가 팔백년 도읍할 땅이다. 계룡산의 돌이 희어지면, 초포에 배가 다니고(계룡산의 돌은 이미 백색이며, 초포에 배가 들어오면, 물이 넘어가고), 대중화(중국)와 소중화(조선)가 모두 망할 것이다. 한양은 이씨의 삼백년 터전으로 하늘이 정한 바 있다. 만약, 작은 행운이 있다면, 삼백년 이후 칠갑자(420년)에 이르고, 그 뒤에 지지(地支) 상의 신년(원숭이해)을 알 수 있다.”.
 - 6) 이와 유사한 비기도참작 참고로는 「비서광악유결(秘書光嶽遺訣)」의 “연기군근지(連岐郡近地) 석시제명(石詩題名) 충청도계룡산(忠靑道鷄龍山) 방부인재국혹다화(方夫人才國或多禾) 소옥팔년이화락지(少六八年李花落地)”라는 것도 있는데(村山智順, 1931:853-854),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연기군 근처의 돌에 시를 새겨 놓았다. 충청도 계룡산으로 몇년 후에 나라가 이전된다. 대략 옥팔년에 이씨가 망할 땅이다.” 이 참고에서 連은 燕의 오기이고, 國은 口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 7) 조선조에 도성의 천도와 관련된 풍수적 논의는 ‘광해군(光海君)의 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과 ‘홍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광해군의 교하천도론은 대체로 한양의 지기쇠왕설과 교하의 풍수지리적 및 지리적 입지의 탁월성에 기인한 것이었고, 홍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은 주로 「정감록」의 계룡정씨조선 800년설과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탁월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필원(2007:28)에 의하면, 광해군의 교하천도론은 광해군 4년(1612년)에 지관(地官) 이의신(李懿信)이 상소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상소의 주요 내용은 “임진년의 병란, 역적의 변, 당쟁, 산의 벗겨짐, 인사분란 등은 한양의 지기가 쇠왕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천도 대상지로 가장 적합한 곳은 풍수지리적 및 지리적으로 탁월한 ‘교하’이다”라는 것이었다. 오상학(2015:41)은 “태조 이성계의 한양천도 이후 도성의 천도와 관련된 풍수적 논의는 광해군의 교하천도론이 있었을 뿐 다른 예는 역사상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홍선대원군의 계룡이도설이 사료 부재 등 신빙성이 크지 않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8) 호순신의 「지리신법」의 풍수논리에 의하면, 수리(水理)의 이(理)에서 수(水)의 내거(內去)는 오산(五山)으로 흘러가면 생생(生生)의 기를 산출하여 길복한 터를 이룰 수 있으며, 만일 이와 반대로 수가 흉방(凶方)에서 흘러와서 길방으로 흘러가면 생왕(生旺)의 기가 파(破)하여 흉복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즉, 수법(水法)의 대원칙은 들어오는

곳, 즉 득(得)이 길방이 되고, 나가는 곳, 즉 파가 흉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룡산은 ‘산자건래(山自乾來)’, 즉 건방(乾方)에서 온 것으로 건은 금산(金山)이 되며, 좌선국(左旋局)에서 진손사방이 탐랑성(貪狼星, 양생(養生))으로 길방이 되고, 신경유방이 무곡성(武曲星, 관왕(官旺))으로 길방이 되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곳이라는 것이다(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36-37).

- 9) 대전시지편찬위원회(1984:239)가 기술한 ‘홍선대 원군의 계룡이도설’은 박제경(朴齊綱)이 1886년에 저술한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의 내용을 이능화(李能和)가 1928년에 저술하여 조선기독교창문사(朝鮮基督教彰文社)에서 출간한 「조선기독교 급외교사(朝鮮基督教及外交史)」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 10) 이와 같은 「정감록」의 비결류가 작용하여 형성된 취락으로 ‘신도안 종교촌’ 이외에 ‘풍기읍(豊基邑) 정감록촌(鄭鑑錄村, 정감촌)’이 있는데, 신도안 종교촌은 주로 진인신앙, 신도신앙 및 승지신앙에 의거하여 발생한 것이고, 풍기읍 정감록촌은 주로 승지신앙에 의거하여 발생한 것이다. 부연하면, 풍기읍 정감록촌은 신도안 종교촌과 달리 「정감록」의 승지신앙의 요체인 십승지 중의 한곳을 은거지(隱居地)로 택하여 형성된 것이고, 산지가 아닌 평지에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풍기읍 정감록촌’은 「정감록」의 십승지 중의 한곳인 ‘풍기 금계촌(豊基 金鷄村)’(현재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일대)에 입지했다. 풍기읍의 정감록촌의 형성 등에 관해서는 오세창(1979:166-185)의 “풍기읍의 정감록촌 형성과 이식산업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풍기읍 정감록촌의 풍수지리와 비기도참에 관해서는 최영주(2006:138-144)의 “정감록이 지정한 십승지의 첫째 고장: 풍기 금계동”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11) 계룡산의 풍수지리와 「정감록」의 비기도참이 결합하여 형성된 취락이 ‘신도안 종교촌’이다. 즉, 산지풍수와 비기도참이 결합하여 형성된 취락이 ‘신도안 종교촌’인데, 이와 달리 “배산임수 입지 풍수와 「정감록」의 비기도참이 결합하여 형성된 취락은 풍기읍(豊基邑) 정감록촌(鄭鑑錄村)이다”(오세창, 1979:166-185). 신도안 종교촌과 풍기읍 정감록촌은 입지의 지형적 기반은 다르지만,

풍수유형이 모두 ‘금계포란 형국’, 즉 마치 금계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 12) 시천교는 1924년에 신흥종교로는 처음으로 신도안에 집단으로 이주한 민족종교의 하나로 그 의미가 큰데, 시천교의 신도안 유입, 변천 등을 개관하면, 1924년 시천교 3대 교주 김연국(金演局, 1857-1944)이 신도안 용동리(龍洞里)에 유입하여 상제봉(上帝峰, 천황봉) 아래에 자리 잡으면서 “상제의 명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상제교’로 개칭하였고, 이후 1961년에 4대 교주 김덕경(金德卿)이 천진교(天真教)로 개명하였다. 시천교는 본래 동학기반의 천도교(天道教)가 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천교는 계룡산 신도안에서 상제교와 천진교로 교세를 확장했으나, 1983년 ‘6·20 사업’으로 철수되면서 교세가 약화되었다. 동학이 천도교, 시천교, 상제교 및 천진교로 변하는 과정에서 1대 교주는 최제우(崔濟愚), 2대 교주는 최시형(崔時亨), 3대 교주는 김연국, 그리고 4대 교주 김덕경이었다. 김연국은 최시형의 수제자였고, 김덕경은 김연국의 아들이었다. 김연국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적극적인 친일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천진교의 신앙대상은 상제, 즉 ‘한울님’이고, 최제우, 최시형 및 김연국을 삼위일체로 받들기도 한다. 천진교는 동학계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인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을 기본교리로 하였으며, 경전으로는 「동경대전(東經大全)」, 「정리대전(正理大全)」, 「시천교전(侍天教典)」, 「시의경교(是儀經教)」 등이 있었다(이홍직, 2009:609).
- 13) 일제 조선총독부는 신도안의 신흥종교만 미신 및 유사종교로 폄하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표적 민족종교인 천도교(天道教), 보천교(普天教), 대종교(大倥教) 등도 유사종교로 몰아서 탄압하고 말살을 시도했는데, 이는 이들 민족종교들의 독립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윤이흠, 2007). 신도안 종교촌을 善生永助(1933)는 ‘미신취락’으로(善生永助, 1933:253-257), 그리고 ‘유사종교촌’(1935)으로 각각 폄하했다. 村山智順(1931:850)은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앙업자’로 매도했다.
- 14) 일제 조선총독부는 강점기에 신도안 종교촌의 시천교(상제교) 등의 종파를 미신, 유사종교, 신앙업자 등으로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신도안 종교촌의 ‘상봉(상제봉)’인 ‘천황봉(天凰峰)’을 ‘천왕봉(天

王峰)’으로 왜곡하거나 아예 지형도에서 ‘천황봉(天凰峰)’ 지명과 그의 높이(845.1m)를 표기하지 않기도 했다. ‘천황봉’을 ‘천왕봉’으로 왜곡한 사례는 매우 많은데, 이 경우 본래의 ‘천황봉’을 ‘천왕봉’으로 표기하거나 계룡산의 다른 봉우리를 ‘천왕봉’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지형도에서 ‘천황봉(天凰峰)’ 지명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 중 대표적 사례는 조선총독부(1918)가 발행한 「근세한국오만분지리지형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인데, 이 지형도의 ‘공주(公州)’ 도폭에는 ‘천황봉(天凰峰)’에 한자 지명과 높이가 모두 미표기되어 있다. 이 지형도는 천황봉 바로 위의 ‘쌀개봉’에 지명 표기없이 높이만 827.8m로 표기하여 ‘계룡산의 높이가’(계룡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마치 827.8m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 지형도에는 이른바 ‘닭벼슬’ 부분의 자연성릉에 한자로 계룡산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황봉의 한자 표기 및 높이 왜곡 상황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어, 국립지리원(1977)이 발행한 「1:25,000 지형도: 월암 도폭」의 경우 쌀개봉에 계룡산으로 한자 표기를 하고 828.0m로 표기하면서 실제의 천황봉엔 명칭 표기 없이 높이만 840.0m로 표기하고 있으며, 국립지리원이 1981년에 발행한 「1:50,000 지형도: 공주 도폭」의 경우 쌀개봉에 계룡산으로 한자 표기를 하고 높이를 827.8m로 표기하면서 실제의 천황봉엔 명칭과 높이를 모두 미표기 하고 있다. 국립지리원(1986)이 발행한 「1:25,000 지형도: 월암 도폭」에는 실제의 천황봉에 정상적으로 명칭을 ‘鷄籠山 천황봉’이라 표기하고, 높이를 845.1m로 표기하고 있다. 국립지리원(1986)의 발행 지형도에는 천황봉 바로 위의 쌀개봉에 명칭과 높이 827.8m가 모두 표기되어 있다. 계룡시(2013)가 발행한 「1:17,000 계룡시행정지도」의 경우 ‘계룡산 천황봉’이라 표기하면서 높이를 846m로 표기하고, ‘전망대’라고 부르고 있다.

15) 해방 이후 신도안 종교촌의 이러한 혼란과 관련하여 신도안 종교촌의 ‘종파의 성격’을 연구자, 학술단체, 행정기관, 경찰 등의 공공기관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민족종교, 신흥종교, 신종교,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민속종교(民俗宗敎, 개인의 기복발원), 미신, 무속(무속신앙), 토속신앙, 승지신앙(勝地信仰), 민중신앙, 음사사교

(淫祠邪敎), 사교집단, 퇴폐집단, 풍속집단, 종교집성(宗敎集姓), 혼합종교 등이 그것들이다. 신도안 종교촌의 성격에 관한 학자 및 기관의 규정 사례를 몇 가지 보면, 이경호(1964), 주경식(1984) 및 이영숙(2000)은 유사종교로, 신동호(1969), 류남상(1969), 민동근(1969), 한홍수(1993),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993), 논산군지편찬위원회(1994), 충청남도(1997), 논산시지편찬위원회(2005), 국립공주박물관(2007), 임승범(2018) 및 최원희(2018)는 신흥종교로, 충청남도계룡출장소(1999) 및 진철승(2007)은 신종교로, 국립공주박물관(2007)은 민중신앙으로, 최진아(2018)는 민족종교·민속종교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999)는 종교집성(촌)으로, 조동길(2004)은 사기꾼집단·인격파탄자집단으로, Ryu(2005)는 종교집단·이념집단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신도안 종교촌의 종파의 성격은 제한된 수의 사례들이긴 하지만, 충청남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논산군지편찬위원회 등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신흥종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사종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흥종교의 경우 ‘신흥종교의 성지(聖地)’(국립공주박물관, 2007:52), ‘신흥종교의 본산(本山)’(한홍수, 1993:84) 등의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신도안 종교촌’이라고 칭한 것은 신도안 종교촌의 종파 성격에 관한 위와 같은 극단적인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성격 규정들을 일단 모두 포괄하는 차원에서 그의 성격을 본 연구자의 주관대로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신도안 종교촌’이라는 중립적 명칭은 국립공주박물관(2007:52) 및 진철승(2007:200)도 사용하고 있다.

16) 신도안을 비롯한 계룡산 일대에서 무속이 무차별로 확산되고, 신도안 일대에서 다양한 종파가 번성하면서 무속과 신흥종교가 사회악이고 부조리이므로 추방·타파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은 일제강점기 이래 1980년 초 신도안 종교촌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두 가지 사례를 들면, 하나의 사례는 행정기관에 의해 1960-1970년대에 사회정화운동의 형태로 전개된 것인데, 당시 신도안에서 시행되었던 관련 행사의 간판에 ‘신도내자세정화축진결기대회’라는 주구호 아래에 “무속행위 추방으로 국민총화 이룩하자”

와 “새마을정신으로 미신타파 앞장서자”라는 부구호가 쓰여 있었다(충청남도, 1999:245). 이로 보아서 이 행사는 당시 계룡산 일대에 확산되어 있던 무속 굿당들의 철거를 도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하나의 사례는 언론기관에 의해서 사회정화운동의 형태로 전개된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사가 동아일보 1923년 12월 1일자부터 1924년 1월 11일자까지 36회에 걸쳐 연재한 ‘계룡산기(鷲龍山記)’이다. 이 연재기사의 제목은 ‘계룡산기’이나, 실제 그의 내용의 핵심은 ‘신도안’에 집중되어 있다. 제1회 가사의 제목도 ‘呪咀할 休戰紀念日에 平和의 王을 차져서 정도령은 잇는 가 업는가 가을에 싸인 고찰 동학사’로 되어 있다. 연재기사의 내용 중 신도안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신도안은 ‘당시 세상에 은밀하게 떠돌던 새 세상에 대한 소문의 진원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들과 그들에게 속아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조동길, 2004:44-49).

- 17) 최근 신도안 일대에 계룡대(3군본부)가 입지하고, 신도안 외곽에 계룡시가 입지한 것을 두고, 계룡산의 풍수도참이 사실상 실현된 것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자가 보기에 이러한 언급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자는 신도안을 비롯한 계룡산 전반에서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성이 살아나도록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계룡산의 삼불봉, 관음봉, 연천봉, 압용추·수용추 등지에 분포하던 무속과 신도안에 있던 종교촌이 원형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계룡산 풍수지리의 진정한 실현이라고 본다.
- 18) 본 연구자는 최근 군·면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을 연구하였는데(최원희, 2016; 2017), 이러한 연구들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군·면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 형성에 해당 지역의 풍수지리적 특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계룡시, 2005,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4년사」.
 구중희, 2001, 「계룡산 굿당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2018, 「이야기로 만나는 계룡산국립공원 문화자원」.
 국립공주박물관, 2007, 「계룡산」.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수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권선정, 2002, “텍스트로서의 신도안 읽기: 조선초 천도와 정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4(3), 19-36.
 김규순·박현규, 2018, “경복궁의 풍수지형과 풍수요소에 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7(2), 199-214.
 김두규, 2007,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성,” 계룡산, 국립공주박물관, 196-199.
 김선화, 2010, 「술수평이 사람들」, 서울: 북나비.
 김준걸, 2014, 「소설 계룡산」, 서울: K-books.
 논산군지편찬위원회, 1994, 「논산군지」.
 논산시지편찬위원회, 2005, 「논산시지: 4권 민속과 현대 문화」.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대전 100년사: 제1권」.
 대전시지편찬위원회, 1984, 「대전시지」.
 두마면지편찬위원회, 2008, 「두마면지」.
 류남상, 1969, “계룡산 신흥종교의 계보와 교리 연구,” 철학연구, 8, 137-160.
 류제현, 2002, 「한국문화지리」, 서울: 살림.
 민동근, 1969, “계룡산 일대 종교의 실태조사,” 철학연구, 89-116.
 박용구, 1992, 「계룡산 1~8(권)」, 서울: 자유문화사.
 서울교육방송, 2018, 「정감록과 계룡산」, 미디어북.
 신국현, 2000, 「계룡산」, 서울: 고글.
 신동호, 1969, “계룡산 신흥종교인의 미래관 연구,” 철학연구, 8, 117-136.
 신용희, 1999, 「민간신앙으로 본 계룡산: 제45회 백제문화제 기념 신용희 사진전」.
 오상학, 2015, 「한국 전통지리학사」, 파주: 들녘.
 오세창, 1979, “풍기읍의 정감록촌 형성과 이식산업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9, 166-185.
 옥한석, 2017, 「풍수 시간리듬의 과학: 고전적 풍수지리와 그의 현대적 재해석」, 서울: 이지출판.
 윤용혁, 2018, “계룡산 역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이야기로 만나는 계룡산국립공원 문화자원」, 18-30.
 윤이흠, 2007,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서울: 모시는사람들.

- 이경호, 1964, 「계룡산 신도안과 유사종교」, 공주: 공주사범대학.
- 이길구, 1996, 「계룡산」, 대전: 대문사.
- 이길구, 1997, 「계룡산 신도안·돌로써 금정을 덮었는데」, 대전: 대문사.
- 이길구, 2001a, 「계룡산맥은 있다」, 대전: 누리문화사.
- 이길구, 2001b, 「방백마각 구혹화생」, 대전: 누리문화사.
- 이길구, 2009, 「계룡비기」, 대전: 원디자인.
- 이길구, 2016, “계룡산 유기의 연구: 콘텐츠 활용방안 모색을 겸하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도원·박수진·윤흥기·최원석, 2012,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서울: 지오북.
- 이병도, 1938, “조선초기 건도문제,” 진단학보, 9, 30-85.
- 이영숙, 2000, “계룡산 신도안 지역의 문화역사지리적 성격,”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성 역, 1974, 「택리지」, 서울: 을유문화사.
- 이홍직, 2009, 「증보 새국사사전」, 서울: 교학사.
- 이필원, 2007, “광해군의 왕권강화책과 그 한계: 교하천도 논의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승범, 2018, “계룡산 신도안,”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이야기로 만나는 계룡산국립공원 문화자원」, 31-44.
- 정중수서현강, 2003, 「계룡산」, 서울: 대원사.
- 조동길, 2004, “1920년대의 계룡신(4): ‘계룡산기’의 내용과 의미,” 응진문화, 17, 32-56.
- 조동길, 2009, “계룡산과 감사 다시보기,” 응진문화, 22, 134-136.
- 조동길, 2015, “공주의 문화와 예술,” 공주시·공주학연구원, 「공주학강좌」, 143-160.
- 주경식, 1984, “계룡산 신도안의 지리적 현황,” 지리학, 29, 72-88.
- 지광환·장동호·박지훈·이성순, 2009, 「위성에서 본 한국의 산지지형」,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진철승, 2007, “계룡산 신종교의 형성과 변천” 국립공주박물관, 「계룡산」, 200-203.
- 최길성 역, 1990, 「조선의 풍수」, 서울: 민음사.
- 최길성·장상인 역, 1991, 「조선의 유사종교」,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최영주, 2006, 「신한국풍수」, 서울: 동학사.
- 최원석, 2014,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파주: 한길사.
- 최원희, 2015a, “계룡산과 금강,” 공주시·공주학연구원, 「공주학강좌」, 71-81.
- 최원희, 2015b,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 연구,” 2015 추계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1-54.
- 최원희, 2015c, “공주 곱나루 설화의 곱상으로의 재현 및 곱상의 변형 연구,” 2015 추계 한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9-81.
- 최원희, 2016,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홍성군 결성면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5(2), 155-180.
- 최원희, 2017,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6(2), 215-253.
- 최원희, 2018, “계룡산 지리와 풍수,”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이야기로 만나는 계룡산국립공원 문화자원」, 9-16.
- 최진아, 2018, “계룡산 삼신당,”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이야기로 만나는 계룡산국립공원 문화자원」, 79-92.
-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 최창조, 2009,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이론」, 서울: 민음사.
- 최창조, 2011, 「사람의 지리학: 최창조의 망상록」, 파주: 서해문집.
- 최창조, 2013, 「한국풍수인물사: 도선과 무학의 계보」, 서울: 민음사.
- 최창조, 2016, 「한국자생풍수의 기원, 도선」, 서울: 민음사.
- 충청남도, 1994, 「계룡산지」.
- 충청남도, 1997, 「충남개도 100년사: 하권」.
- 충청남도, 1999, 「사진으로 본 충남 100년」.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1, 「계룡소고」.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3, 「신도고사」.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1999, 「계룡의 어제와 오늘」.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한홍수, 1993, 「충청의 재발견: 계룡산」, 서울: 한민출판사.
- 善生永助, 1933, 「朝鮮의聚落: 前篇」, 朝鮮總督府.
- 仲摩照久, 1930a, 「地理風俗: 朝鮮地方 上」, 東京: 新光社.
- 仲摩照久, 1930b, 「地理風俗: 朝鮮地方 下」, 東京: 新光社.
- 村山智順, 1931, 「朝鮮의風水」(民間信仰 第二部), 京城: 朝鮮總督府.
- 村山智順, 1935, 「朝鮮의類似宗教」(調査資料 第42輯), 京城: 朝鮮總督府.

- 계룡시, 2013, 「1:17,000 계룡시행정지도」.
계룡시, 2017, 「계룡시관광안내도」.
국립지리원, 1977, 「1:25,000 지형도: 월암 도폭」.
국립지리원, 1981, 「1:50,000 지형도: 공주 도폭」.
국립지리원, 1986, 「1:25,000 지형도: 월암 도폭」.
국립지리원, 1996a, 「1:5,000 지형도: 공주 079 도폭」.
국립지리원, 1996b, 「1:5,000 지형도: 공주 080 도폭」.
국토지리정보원, 2018a, 「1:50,000 지형도: 공주 도폭」.
국토지리정보원, 2018b, 「1:50,000 지형도: 대전 도폭」.
朝鮮總督府, 191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公州 圖幅」.
Ryu, J.H., 2005, Kyeryong mountain as a contested plac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5), 553-570.
논산계룡신문, 2017년 9월 19일자, “태조 이성계 ‘계룡산 신도 행차’ 재현된다”

교신 : 최원회,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wh@kongju.ac.kr)

Correspondence : Wonhoe Choi,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cwh@kongju.ac.kr)

투 고 일: 2018년 11월 26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3일

투고확정일: 2018년 12월 13일